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高同窓會報

발행 · 편집인 박 대 동
편 집 주 간 이 상 룡
발 행 처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Tel. (051)245-7551~3 Fax. (051)245-7550

제작 사인텔 Tel. (051)245-2337

1968년 6월 1일 창간 www.kyungnam.or.kr 제407호 - 2015년 9월 25일 발행

경발위 시한부 배수진 쳤다! 목표액 100억 향해 재발진

전재호 위원장, 내년 개교기념일을 목표 달성 마지노선 천명
기수별 책임 모금액 독려, 기부자 명단 모교에 영구 보존키로

재경동창회 경남중고발전위원회가 기금 목표액 달성 시한을 2016년 4월 30일로 정하고 '제2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전재호(21회) 재경 경발위원장은 동창회보와의 회견에서 "올해 초, 위원장 소임을 맡으면서 밝힌 대로,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서 동문 모두가 모교발전기금 기부자로 기록되는 영예를 누리도록 호소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부자 명단은 동판에 새겨 모교에 영구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호 위원장은 "목표액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해서 모금활동을 무한정으로 연장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제70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내년 개교 기념일인 4월30일까지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모금운동을 종료하겠다"며 시한부 모금을 천명했다.

전재호 위원장은 총력을 기울일 이번 모금운동을 '제2차 모금'으로 규정

제2차 모금에 나선 전재호 위원장

하고 모금운동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추진협의회는 전재호 위원장을 포함해서 강실근(23회) 경발위 운영본부장과 재경동창회보 <용마> 편집인 박승준(27회) 동문, 전희수(31회) 경발위 자금운영팀장, 심재구(31회) 재경동창회 사무총장으로 구성했다.

전재호 위원장은 경발위 출범 당시,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협의해서 책정한 기수별 책임 모금을 완수하기 위해 아직까지 모금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동문들을 대상으로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정액 기부 방안을 권유할 방침이다.

모금활동이 개시된 지 6년 7개월이 되는 지난 7월31일 현재, 재경 경발위가 모금한 기금은 63억6천9백여만원이다. 기수별로는 21회가 11억6279만원으로 가장 많고, 14회가 3억6097만원, 15회가 2억3760만원, 24회가 1억7380만원, 8회가 1억5410만원을 기부했다. 이밖에도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기수는 5회, 10회, 12회, 13회, 17회, 20회, 22회, 23회, 25회, 26회, 27회이다. 같은 기간에 본부동창회가 모금한 총액은 12억 6877만원(이자 수입 포함)이다.

재경 추진협의회는 정액제 다수 모금활동을 전개하면서 고액 기부자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으며, 특히 동호회와 직능동창회, 지역동창회 등 동창회의 모든 조직에 대해서 "십시일반으로 다시 한 번 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5면>

기별야구대회 10월4일
용마골프대회 11월16일
용마당구대회 11월 21일
용마등반대회 12월13일

제47회 기별야구대회를 위시해서 본부동창회 후반기 주요 행사가 10월부터 막을 올린다.

동창회 사무국과 경야회는 지난 8월26일 부산진 협성뷔페에서 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0월4일 오전 11시 경남고 야구장에서 기별야구대회 개막식을 갖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는 청-장년부 26개 팀이 출전하며, 10월31일에 결승전을 치르기로 했다.

또 제17회 용마골프대회는 오는 11월16일(월) 오전 10시 동래컨트리클럽에서 열리며, 주니어 동문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제3회 용마당구대회는 오는 11월21일(토) 오전 9시부터 뉴다비치 당구클럽에서 개막한다.

용마산악회도 오는 12월13일(일) 경남 밀양 재약산 일원에서 2015년도 용마산악회등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교 70년사, 내년 연말 완료할 계획"

박대동 회장, "재경동창회와 협의해 추진할 것"

총회 직전에 열리던 이사회와는 달리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모교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박대동 본부회장은 모교 70년사와 관련해 "2016년 연말까지 70년사를 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동 회장은 지난 7월4일 코모도호텔 오륙도홀에서 열린 2015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진위원회와 편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발간 경비 등은 재경동창회와 협의해 오는 10월 중으로 편찬 작업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70년사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박대동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박대동 회장은 모교 70년사 발간이 지연된 데 대해 거듭 유감의 뜻을 밝히고, "내년 연말에 발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향 등은 재경동창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간행 경비가 잠정적으로 2억3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동창회보 등을 통해 동문들의 협조와 후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회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제11조 '이사회 기능' 중 봉사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과 제12조 '이사회 구성'에 당연직 이사에 자문위원을 추가할 것, 제14조 '이사회 결의' 항목의 의결 정족수를 '출석 인원 과반수'로 하기로 의결했다.

황유명 사무총장은 모교발전기금 현황에 대해 "본부동창회가 모금한 기금의 원금은 물론 이자 수입금에 대해서도 지출한 바가 전혀 없으며, 이자 수입금은 계속 적립해 나갈 것"이라면서 발전기금 정관을 조정해 현재 6억원인 정기예금 예치금에 4억원을 더 추가하겠다고 보고했다.

황유명 총장은 용마장학회 지출이 이자 수입금을 초과해 지난해 1800여만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3천만원에 이를 것이라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모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다수 이사들은 지난해 모교에 대한 지원금이 3억2천만원을 상회하는데 비해 진학 실적 등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학력신장 일변도인 발전기금 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문위원 장병호(20회) 동문 등은 30대, 40대 젊은 동문들의 참여와 관련해 "동창회의 미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이태석 동문 기념사업회를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기부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태석 동문이 졸업한 인제대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안강태(11회) 명예회장과 이용흥(19회) 고문,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박철병(23회) 감사 그리고 이병찬(23회) 재정분과위원장과 백창영(23회) 최호덕(23회) 부회장 등 37명이 참석했다.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율이 50%를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경고 덕형관 앞날 심상치 않다”

문화재 활용 방안 논의 없고, 보수공사비 신청 무관심
문화재법령 개정되면 국가문화재 지위 강등될 수도

방문객을 위한 안내 프로그램이 없는 덕형관 주변은 주차장이 되었다.

덕형관 앞 화단은 재활용 쓰레기 수집 장소가 되었다.

덕형관 난관 가장자리가 떨어져 나갔다.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모교 덕형관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지 2년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사비를 지원하는 개-보수 작업에도 손을 놓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문화재 당국은 등록문화재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 문화재의 요건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차 덕형관의 위상에 불이익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본부동창회가 덕형관 문화재등록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당시 문화재위원이었던 단국대 건축과 교수 김정신(24회) 동문은 최근 서강태(30회) 모교 교장에게 서신을 보내 덕형관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서신을 통해 “일반적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소유자(관리자)는 건물의 활용 계획을 세우고, 유지-보수를 위한 수리비 지원을 지자체를 경유해 정부에 요청한다. 그러나 덕형관은 지난 2년 동안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나 수리-보수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신 동문에 따르면, 근래에 들어 상당액의 보수비가 국비로 지원되면서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과 보수비 지원 요청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정비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지정 요건을 손질해서 ‘국가등록문화재’와 ‘지자체등록문화재’로 이원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김정신 동문은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신규 지정 신청의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등록문화재도 보존과 활용 상태를 심사, 평가하여 등급을 구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자체 등록문화재의 유지보수 경비는 해당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복지 수요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그 경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놓은 역사관, 개설여부 불투명

덕형관을 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2013년 당시, 문화재등록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용흠(19회) 본부고문은 “덕형관은 건축물로서의 보존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들이 공부했던 행적과 추억이 서려 있는 건물이라는 점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해, 덕형관을 근현대사의 기념 공간, 또는 모교 역사관으로 조성, 활용할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김정신 동문도 “덕형관은 모교 캠퍼스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인접하여 이태석 신부 기념동상과 한국전쟁 전몰 동문 추모 공간 ‘성찰의 집’이 조성돼 있어서, 구덕산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성이 강하다. 이를 잘 보존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높게 평가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라고 말해 덕형관이 지닌 공공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개-보수 작업을 조속하게 시행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 공간으로 탈바꿈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계정됩지 모를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국가등록문화재’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신 동문과 이화여대 건축학부 교수 신영수(28회) 동문은, 건물 안전도를 포함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부문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모교 당국과 동창회가 덕형관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협의-추진 기구를 서둘러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신 동문은 “3부 요인과 이태석 신부를 배출하고 각 계각층의 수많은 인재를 양성한 70여 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도 아직까지 역사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김 동문은 “서울을 비롯해 대전, 청주, 부천 등지에는 지방 교육청이 관리하는 교육박물관이 설립되어 있다”면서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육박물관 설립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130평 규모의 서울역사박물관은 등록문화재 제2호인 종로구 화동의 옛 경기고 교사에 개설돼 있다.

개성고 새 역사관, 동아고도 개설

모교 당국과 동창회가 역사관 설치 방안에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구덕산우회가 산악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서혜량(9회) 동문 등 경구회가 오는 10월 졸업 60주년 홈커밍 기념으로 동문 문화자료실(가칭)을 개설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계 동문들의 의견과 구상을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모교 7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역사관 개설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1991년 부산지역에서 가장 먼저 ‘백양역사관’을 개설한 개성고동창회가 최근 동문들이 10억원을 지원해 독립된 새 역사관 건물을 준공했고, 동아고동창회도 지난해 말 모교 역사박물관을 개관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평준화 이전까지 명문을 자처한 동창회가 저마다 모교 역사관을 이미 개설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비추면, 상징성과 기념관 성격을 함께 지닌 등록문화재 덕형관을 보유하고서도 손을 놓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테마 관광객들 관심 많다

내부관람 곤란, 안내 팸플릿 없어

등록문화재에는 사진과 같은 문화재청의 동판이 부착되지만, 덕형관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2013년 10월28일, 문화재청이 덕형관을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568호로 공시함으로써 덕형관은 용마가족의 기념관에서 범국민의 문화재로 탈바꿈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덕형관은 건축학도들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는 일반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 서구청이 지난 3월부터 사회적 기업인 ‘에코투어 거위의 꿈’에 위탁해 운영하는 ‘서구버스관광투어’ 테마 코스에도 덕형관이 포함돼 있다. 문화재 지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관계를 맺은 서구청장 박극제(24회) 동문은 일찍감치 덕형관과 이태석 신부 동상을 지닌 모교를 포함한 관내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한 바 있다.

버스투어를 관리하는 유선옥 가이드는 “관람객들은 보기 드문 원통형 건물이라는 점에 대해 관심이 많다. 또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 저명인사들과 유명 야구선수들이 졸업한 학교라고 설명하면 매우 유심히 관찰하고 만족해 한다”며, “특히 이태석 신부님 동상을 안내할 때는 모두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 관람객의 경우는 내부도 살펴보게 개방하지만, 개인 방문객들은 내부 관람이 쉽지 않다. 인터넷 블로그에도 외부만 보았다는 글들이 올라온다. 더구나 안내자가 없고 안내 팸플릿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들은, 주차금지 표지판 아래 놓인, B4 용지만한 팻말에 적힌 간략한 안내만 받고 돌아선다.

"나의 생애 마지막 모교 방문"

9회 동기회, 10월17일 사상 첫 졸업 60주년 홈커밍
해외 동문 포함 60여명 동참, 동문문화자료실도 개관

동문 저자 수집에 앞장선 서해량 경구회 회장

"나의 생애 마지막 모교 방문. 많은 친구 만나고, 팔순의 행복하고 멋진 여행과 기념촬영. 그리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 주십시오."

재경경구회 서해량 회장이 '졸업 6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특집'으로 발행한 <경구회 소식> 제28호에 게재된 구절이다. 여기에서 '생애 마지막'과 '팔순'을 빼면, 지난봄에 열린 49회 동문들의 졸업 20주년 홈커밍 행사 초대장 내용과 똑같다. '모교 방문길'에 나서는 설렘과 기대는 40년 세월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9회 동문들이 동창회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졸업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다. 오는 10월17일, 해외 동문 4명을 포함해 서울을 출발한 동문 30여명과 부산-경남지역 동문 30여명이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모교 방문길에 나선다.

17일 오전 KTX편으로 부산에 도착한 서울 동문들은 부산 동문들과 부병동 구포집에서 해후와 오찬을 마친 뒤, 오후 2시 경남고를 방문한다. 서강태 교장과 3학년 재학생들의 영접을 받은 방문단은 국산관에서 열리는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교정을 둘러보고 60년이 흐른 세월의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는다.

특히 방문단은 이날 덕형관에 개설되는 '동문문화자료실' 개관식에도 참석한다. 모교 도서관 부설 시설로 문을 여는 이 자료실은 경구회 회장 서해량 동문이 주도해서 수집한 동문들의 각종 저작물을 소장하는 첫 역사공간이다.

서해량 회장은 "모교 역사상 처음으로 졸업 60주년 홈커밍 데이를 계획하고 팔순잔치를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역사적인 행사에 동기생들이 빠짐없이 동참하여 함께 기쁨을 만끽하자"고 말했다. 경구회의 졸업 60주년 기념 홈커밍에는 독일 베를린의 박성조 동문을 위시해서 미국 LA의 김태준 동문, 샌프란시스코의 조동훈 동문 그리고 일본 도쿄의 신선호 동문 등 해외동문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9회 동문들이 첫 테이프를 끊을 졸업 60주년 기념시대가 10회 기수 이후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용마가족 출판물은 다 모여라!"

서해량 동문 주도 동문저서 총결집, 문화자료실 개설

경구회 사무실에 설치된 동문 저서 서가

경고역사관 개설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동문들이 저술한 각종 서적들을 소장하는 동문문화자료실(가칭)이 개설된다. 이 자료실은 재경경구회 서해량 회장과 재경동창회 김경희(9회) 고문이 기획하고 저서 수집을 주도해서 문을 여는 것이다.

김경희 고문은 지난 4월30일 모교 개교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서강태 교장과 경구회 홈커밍 행사의 하나로 개관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오는 10월17일 개설될 예정인 문화자료실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학술 분야의 전문서적을 포함하여 각종 문예창작집과 동문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물, 기타 저술 등 동문들이 출판했거나, 동문들에 관한 모든 서적을 망라해 수집, 보존할 계획이다. 또한 배우자나 형제, 자녀들과 공동으로 저술한 서적도 이 문고에 포함하기로 했다.

동문들의 저서를 수집, 보존할 것을 처음 제안한 서해량 동문은 "동문 문화자료 컬렉션은 명문으로서의 새로운 전통이 되고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물려줄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서해량 동문은 "앞으로 후배 기수들이 졸업기념 홈커밍 행사 때 동기생들의 저서를 수집해 기증하는 관례를 새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면서 기별 동기회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문화자료실은 모교 역사관이 개관하면 부속 공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역사관에 동문 저서를 수집, 소장하는 경우는 개성고(전 부산상고)의 백양역사관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고동창회는 지난 2013년 동창회 100주년 기념행사 때,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가진 '동문저서전'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600여권을 수집해 소장하고 있다고 백양역사관 노상만 관장이 밝혔다.

산악박물관, 설립 시동

이명규 동문, "연내 기초조사 완료할 것"

오기현 동문(오른쪽)과 이명규 동문

전문산악인 오기현(20회) 동문이 소장한 산악장비를 모교에 기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제기된 산악박물관 설립 문제가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구덕산우회(회장 안형수, 24회)는 오기현 동문의 기증 의사가 결심을 몇도륙 힘을 모으기로 하고 이명규(24회, 전 부산경찰청장) 동문에게 추진 실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규 동문은 올해 안으로 "기초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설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설립준비 실무를 내년 안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규 동문은 오기현 동문의 소장품 이외에도 "모교 산악박물관에 전시할 산악장비 목록을 조사하고 수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굴지의 산악박물관으로 개관할 뜻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구덕산우회의 산증인이기도 한 오기현 동문은 모교 재학 시절에 자신이 사용한 장비들을 위시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산악장비 다수를 소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해 속초에 개관한 산림청의 국립산악박물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5월에 개관한 한라산산악박물관 그리고 도봉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등이 있다.

박동열 본부고문 타계

본부동창회 박동열(8회) 고문이 지난 8월14일 향년 79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1984년 혜운대성심병원을 설립한 고 박동열 고문은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로, 지역사회의 지도적인 의료인으로, 참된 인술을 베풀었다. 1936년 1월30일, 부산동인고 초대 이사장을 지낸 동래향교 유림 박재원 선생의 슬하에서 태어난 고인은 매사에 중용의 미덕을 실천함으로써 "누구와도 불편함이 없는 덕망가"라는 찬사를 들었다. 세속적인 이재(理財)와는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에 엄격하고 어려운 이웃을 지나치지 않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구현했다.

8회 동기들을 대표하여 동창회 활동에 헌신적이었던 고인은 제27대 본부동창회장을 역임하며 동창회 발전에 기여해 용마가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거침없는 사자후로 유명했던, 우리시대의 고승 활웅(8회) 스님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직언을 쏟아내자 원로 동문들이 동기생인 고인을 파견사 성전암으로 보내 활웅 스님을 진정시키도록 한 일화도 있다.

송두호(3회) 본부고문의 차남을 사위로 두어 사돈이 나란히 동창회장을 역임한 진기록도 남겼다. 유족으로는 부산시의원과 재부이화여대동창회장을 지낸 미망인 서정옥 여사와 아들 세준, 철균 씨가 있다. 고인의 유해는 실로암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은사님 모시기 붐?

은사님들, "올해는 대접 잘 받는다"

오거돈 고문이 은사들을 초청했다. (오른쪽부터) 이형수 선생, 오거돈 고문, 한민, 이상만, 박태신, 윤충진 선생

지난 4월에 열린 19회 홈커밍 행사를 전후로 해서 고명의 은사들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홈커밍 행사 때, 은사 초빙 소임을 맡았던 이춘만(19회) 동문에 따르면, 재경고문 배재욱(17회) 동문과 본부 자문위원 김길제(18회) 동문, 분부고문 오거돈(21회) 동문은 윤충진(93세) 이형수(92세) 박태신(92세) 이상만(89세) 한민(84세) 은사를 오찬에 초빙해 안부와 근황을 묻고 재학시절 이야기로 유쾌한 한때를 보냈다.

또 전 재경부 장관 강만수(18회) 동문과 전 국회의장 김형오(20회) 동문도 은사들과 전화를 통해 담화를 나누고, 최근에 출판한 저서를 선물해 은사들을 흐뭇하게 했다. 고희 안팎으로 노령층에 접어든 제자들을 만난 은사들은 왕성한 노익장을 과시하며 시종 옛일들을 여전히 명확하게 회고하여 제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한민 선생은 "웬만한 자리에 가면 좌장 노릇을 하는데, 경고 선생님들과 만나면 꼼짝없이 막내 신세가 돼 한마디 끼어들 틈도 없다"고 말해 쪽소를 자아냈다.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해방 전후의 비화를 공개하며 특출한 기억력을 과시한 이형수 선생은 "올해는 대접을 잘 받고 있다"면서 각계에서 지도적 활동을 벌이는 제자들의 활약상을 격려했다.

재경동창회 최대 행사인 용마골프대회에는 올해도 60개조 238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막강 26회, 3연패 위업 이루었다

재경 용마골프대회, 야구 선후배 김영목-정기조 그린재킷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 자리를 지키며 기염을 토했던 26회가 기어코 3연패의 위업을 이루었다.

26회 최영수, 박상용, 전상섭, 박원세 동문조(239타)는 9월 10일 엘리시안 강촌CC에서 거행된 제13회 용마골프대회에서 23회 김영목, 서상병, 유원형, 문창호 동문조(245타)를 6타 차이로 제치고 단체전 시니어부에서 3년 연속 패권을 거머쥐었다.

재경동창회 최고의 행사답게, 60개조 238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그린재킷은 모교 야구부 선후배 사이인, 김영목(23회, 78타) 동문과 정기조(29회, 73타) 동문에게 돌아갔다.

단체전 일반부에서는 정기조 동문이 활약한 29회가 우승을 차지했고, 28회와 32회가 2, 3위에 올랐다. 단체전 시니어부 3위는 노익장을 과시한 11회에게 돌아갔다. 친선조 라운딩에서는 골드시니어부의 장세원(11회) 동문과 시니어부의 김경석(24회) 동문, 일반부의 홍종철(41회) 동문이 우승의 영예를 누렸다. 또, 최장타상은 261m를 기록한 이순호(40회) 동문과 250m를 기록한 원태용(41회) 동문이 수상했다.

지난해 대회보다 참가 인원이 더 늘어난 이날 대회에는 21명 대거 참가한 14회와 16명이나 참가한 41회가 최다참가상을 받았다. 참가자 가운데 49회 재경동기회장인 서인석 동문이 막내였고, 40회 기수들 가운데 46회만 빠지고 49회까지 모두 참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대회는 집행위원장 권영태(22회) 동문과 용마골프회 간사 신동관(39회) 동문 등 대회 준비요원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지난해 참가비 25만원을 올해는 20만원으로 낮추었으며, 40세 아래 참가자들은 15만원으로 대폭 '인하' 했다.

특히 많은 동문들이 대회를 후원해 협찬금 3,500만원과 고급 오디오와 43인치 HD-TV, 가정용 냉동고를 비롯한 각종 부상과 상품을 협찬했다. 제11회 대회부터 홀인원상을 내놓은 박양곤(40회) 동문은 이번 대회에도 외제 승용차를 부상으로 내놓았다. 홀인원상 수상자는 올해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만찬행사에는 27회 동기회의 록밴드 '워커스' 가 여흥을 돋우며 대회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민생활 40년 만에 처음 부른 교가"

박대동 회장, 상파울로-시카고 동문들과 감격 상봉

브라질 이민 40여년 만에 모교 동창회장을 만난 브라질 동문들

시카고 동문들은 큼직한 회기까지 들고 나와 동창회장을 맞이했다.

브라질 수도 상파울로, 한인 상가 밀집지역인 봉 페치로의 한국식당 '뉴 신라관'에 모인 브라질 동문들은 소주잔을 부딪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사상 처음으로 브라질을 방문한 모교 동창회장과 함께한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지난 7월17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막된 세계한인무역협회 주관 '남미 통합 차세대 무역스쿨'에 국회 대표로 참석한 박대동 회장은 행사 일정을 마친 뒤 미국으로 이동하기 전에 상파울로 지역 동문들과 감격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동창회장으로서 남미지역 동문들과 해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덕희(21회) 회장을 비롯해 가족을 동반해 참석한 동문들은, 미리 준비한 조니워커를 돌리치고, 국산 소주와 바비큐로 동창회장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모교의 영광이 세계만방으로!"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박대동 회장은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와서 우리 동문형제들을 만나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하고 "용마가족들이 미래 세계경제 주역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데 선봉이 되자"고 건배를 제의했다.

상파울로국립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브라질동문회장을 지낸 서우일(24회) 동문은 "짧은 만남의 시간이 너무 아쉬웠다"면서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교가를 부른 감격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우일 동문은 지난 1970년 1월, 경고 졸업장을 받지 못한 채, 제1차 브라질 영농 이민단으로 가족들과 함께 부산항을 떠난 브라질 이민 1세대이다. 한편, 상파울로 지역 동문들은 이번 추석에도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서우일 동문이 전했다.

브라질 방문을 마친 박대동 회장은 미국 시카고에도 들러 미국 중서부지역 동문들과 만나 또 한번 뜨거운 동문의 정을 나누었다. 박영준(20회) 회장 내외를 비롯해 부부동반으로 자리를 함께한 동문들은 처음으로 방문한 동창회장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감격해 했다. 이날 동문들은 미국중서부지역동창회 회기까지 들고 나와 용마동문들의 결속을 과시했다. 박대동 회장의 시카고 방문은 현지 한인신문에도 보도됐다고 정수영(27회) 총무가 전해 왔다.

박대동 회장은 이번 미주지역 동문들과의 상봉에 대해 "현지 동문들의 호응이 너무 대단해서 감회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해외 동문들과의 만남은 의미가 매우 새롭고 또한 컸다"고 말했다.

*QR 마크를 이용하면 브라질 동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1천만원

이태석기념사업 후원금 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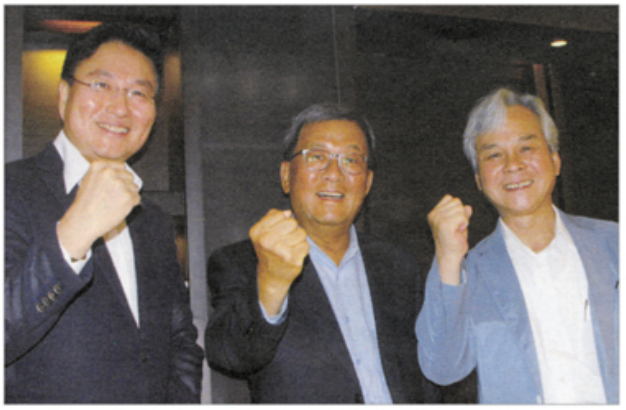
본부동창회 상임위원장인 김영기(23회) 휴톰 회장이 (사)부산사람 이태석기념사업회 후원금으로 1천만을 희사했다.

김영기 위원장은 본부동창회가 이태석기념사업회에 기부하기로 한 후원금을 조성하기로 하자 1천만원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동창회는 기념사업회에 해마다 300만원~500만원을 후원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프리미엄 생활가전 휴롬의 성공신화를 이룬 김영기 위원장은 지난해 가을, 23회 동기생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해, 경남 산청의 휴롬인재개발원에서 졸업 45주년 기념행사를 베푼 바 있다.

발전기금 목표 달성에 출사표 던진 전재호 경발위원장

'2%' 부족 … 少額多數 … '니 냈나?'



재경 경발위는 제2차 발전기금 모금활동을 펼치며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오른쪽부터) 강삼근 운영본부장, 전재호 위원장, 전희수 자금운영팀장

재경동창회 경남중고발전위원회(경발위) 전재호 위원장은 지난 3월, 본부동창회보와의 취임 회견에서 "경발위 새 집행부에 '젊은 피'를 수혈해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젊은 피'는 중-장기 포석의 일환이라고도 했다.

"이제는 후배들이 잘 되어야 선배들을 밀어줄 수 있는 시대"라고 강조하는 전재호 위원장이 제2차 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출사표를 던졌다. 내년 모교 개교기념일인 4월 30일까지로 시한부 배수진도 쳤다.

지난 2009년 정월부터 시작된 발전기금 모금활동이 6년을 지나면서 관심도와 집중도에 피로감을 드러낸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십시일반 참여보다는 재력 있는 동문들에게 목표치를 위탁하려는 경향도 여전히 남아 있다. 심지어 기금 운용 방침에 대해 마뜩잖게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물론 그동안의 성과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비록 아직까지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지라도, 75억원이 넘는 기금을 모금한 것은, 산술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목표치의 75%는 이미 성취한 것이다. '미완의 성공'이라고 자위하고 매듭짓는다고 해서 누가 무어라 말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호 위원장의 진단은 그런 선에서 미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가 회하는 중-장기 포석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전재호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이성이나 산술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이며 공동체를 향한 따듯한 가슴"이라고 강조했다. "끈끈한 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후배가 격의없이 대화할 수 있는 소통력과 여유로움이 용마동문의 강점"이라고 했다. 그런 강점을 지녔으므로 75%까지 성취할 수 있었지만, 다만, 미완으로 남은 25% 가운데는 100%로 가기 위해 함께해야 좋을 요소들이 적지 않다는 게 그의 판단인 듯하다.

"동창회 일을 자신의 집안이나 가족들의 일처럼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선뜻 나서는 선후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켠에는 동창회 일에 거리를 두려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누가 보더라도, 경륜이나 여유가 넉넉한데 인색하게 나올 때는 서글프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러나 25%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2%가 부족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면, 우리 목표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별 책임 기부금 완납이 우선

부산중고동창회가 임찌감치 100억원 목표를 달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목표치 달성은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당초, 모금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것도 그만큼 기대치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모금 실적이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목표액 달성 임정이 모호하게 되었다.

전재호 위원장이 '제2의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것도 내년 4월30일, 모교 개교기념일까지로 시한부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상한 대책 없이 무작정 끌고갈 수는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재호 위원장은 내년 4월 말까지 모금운동추진협의회를 실무 전담 진용으로 삼아 동창회 산하 각급 조직을 총망라해서 모금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부산고의 경우가 그러했거니와, 2차 모금운동의 모토는 소액 다수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다. 그 방편으로 각 동기회가 모금하기로 책정한 '책임 기부금'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삼근(23회) 재경 경발위 운영본부장은 "약정한 기금을 완납하지 못한 기수들에게 우선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동기회 집행부가 아직 모금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동기생들의 협찬을 독려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진협의회는 기부금을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정액 선택을 권장하기로 했다.

재경 발전기금 납부 현황

2009년 1월 1일~2015년 7월 31일 (단위 : 원)

기수	금 액	기수	금 액
1회	50,000,000	37회	2,400,000
2회	1,000,000	38회	2,000,000
3회	2,500,000	39회	1,300,000
4회	14,200,000	40회	2,200,000
5회	140,800,000	41회	19,760,000
6회	3,300,000	42회	1,700,000
7회	16,600,000	43회	-
8회	154,100,000	44회	2,400,000
9회	51,400,000	45회	-
10회	114,862,000	46회	100,000
11회	65,100,000	47회	1,400,000
12회	127,920,000	48회	-
13회	167,200,000	49회	100,000
14회	360,973,000	50회	100,000
15회	237,600,000	51회	100,000
16회	97,600,000	52회	-
17회	120,300,000	53회	100,000
18회	68,300,000	54회	-
19회	73,518,000	55회	-
20회	110,800,000	56회	-
21회	1,162,790,000	57회	-
22회	103,300,000	58회	100,000
23회	107,880,000	59회	-
24회	173,800,000	60회	-
25회	119,500,000	61회	-
26회	107,800,000	62회	-
27회	106,500,000	63회	-
28회	38,500,000	64회	-
29회	53,050,000	65회	-
30회	89,500,000	66회	-
31회	13,500,000	67회	-
32회	31,476,000	68회	30,000
33회	21,000,000	익명	2,010,000,000
34회	21,700,000	기타	14,305,000
35회	9,150,000	예금이자	169,641,444
36회	4,100,000	계	6,369,055,4444

※ 14회는 동기에 전체 모금액을 재경으로 납부

본부 발전기금 납부 현황

2015년 9월 3일까지 (단위 : 만원)

기수	금 액	기수	금 액
1회	100	31회	4682
2회	-	32회	290
3회	1030	33회	10244
4회	670	34회	1700
5회	100	35회	40
6회	510	36회	270
7회	50	37회	140
8회	2010	38회	340
9회	300	39회	200
10회	1660	40회	20
11회	180	41회	880
12회	2622	42회	-
13회	190	43회	70
14회	-	44회	500
15회	2650	45회	50
16회	140	46회	-
17회	13230	47회	300
18회	1520	48회	-
19회	4510	49회	-
20회	6530	50회	-
21회	6510	51회	-
22회	9730	52회	-
23회	3670	53회	-
24회	4600	54회	10
25회	7500	64회	500
26회	5030	기타	1660
27회	5010		
28회	7230		
29회	5760		
30회	5810	계	120748

전재호 위원장, 1000만원 추가로 기부
배재욱 고문, "매달 50만원 기부할 것"

'백의종군'으로 모금활동에 나선 배재욱 고문

전재호 위원장은 제2차 모금을 전개하면서 발전기금 1,000만원을 희사했다. 전 위원장은 이미 3,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개미군단'을 동원하겠노라며 각개전투를 자처하고 나선 배재욱(17회) 재경고문도 "모금운동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 경발위는 배재욱 초대위원장에 이어 제2대 임우근(19회) 위원장 그리고 전재호 위원장으로, 전임 재경동창회장이 위원장 소임을 맡음으로써 모금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추동력도 잃지 않고 있다.

경발위는 제2 모금운동의 취지를 쓱넓게 전파하고 동문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일찍이 27회 동기회가 캠페인 캐치프레이즈로 활용한 '니냈나'를 차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니냈나'는 4년 전 기금모금 초기에 27회 동기회가 건배사로 채택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전재호 위원장은 박대동 본부회장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들과도 모금운동을 협의할 예정이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창회보를 구독하시는 것
모교와 동창회를 도우는 일입니다.

구덕산방 / 모교 70년의 산증인, 이희문 동문을 만나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지만, 그래도 …"

9회 동기회인 경구회(慶九會)가 오는 10월17일, 졸업 60주년을 기념하여 모교를 다시 찾는다. 이번 방문길에 여든 살의 노익장 '할아버지 선배들'은 수능시험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는 하이틴 '손자 후배들'에게 빵과 우유를 선물하고 격려할 작정이다. 이들 3학년들은, 다섯 달쯤 지나면, 제70회 졸업생으로 모교를 떠난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선후배 동문으로 마주하는 이 조우는 과연 어떤 광경을 연출할까?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이 광경은 장차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될까? 그런데 그날 발생할 희귀한 조우와 스토리텔링 소재는 또 하나가 더 있다.

경구회의 기념행사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초빙된다. 홈커밍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별초대이다. 그 손님은 모교 73년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동창회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귀빈'이다.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생물 선생님으로 부임해서 교감과 교장을 모두 역임했으며, 본부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오늘의 토대를 닦았던 이희문(6회) 동문이 그 주인공이다.

"경구회 서혜량 회장의 전화가 왔어. 그날 꼭 좀 와 달라고. 미안하지만, 못 나가겠다고 했지. 동창회 행사에 안 나간 게 언제부터인데… 동창회라면 돌아보기도 싫어! 내가 왜 나가나?… 그런데 또 김경희가 전화를 했어. 자기가 행사 추진 책임을 맡았는데, 형님이 꼭 나오셔야 된다면서…"

서혜량 동문과는 아직 만난 적이 없지만, 서로 경남 밀양의 토호 집안에서 태어난 동향 선후배 관계이다. 이렇다할 재력가도 아니면서 후배들을 위해 무던히 애정을 쏟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던 터이기도 했다. 그런 참에 초대를 했으므로 고맙기는 하지만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경희 동문이 '애걸'하는 데는 차마 고개를 돌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희문 교장'은 "한 달에 한번쯤은 경고에 가 보게 돼더라"고 했다.

교사, 교감, 교장 – 최장수 모교 재직 기록

이희문 동문에게 '용마'라는 명제가 숙명처럼 보인다면 지나친 판정일까?

아닐 것이다. 그이가 남긴 족적을 살펴보면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고에서 평교사로, 교감으로, 그리고 교장으로 재직하여 모교 재직 최장수 기록을 가졌다거나, '동창'에 관한 것이라면 앞은 지갑까지 팁어 내놓았다고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관록과 열정뿐만 아니라, 이성적이며 영민하고, 사리와 처신이 깔끔한 그이가 남긴 유-무형의 유산이 모교와 동창회 곳곳에 촘촘하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유명한 일식당을 경영하던 학부형이 찾아왔어. 해마다 엄마씩을 드릴 테니 교장 선생님이 요량해서 학생들에게 써 달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교장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 그분 아호를 따서 장학회를 만들었어. 기부금 때문에 요새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잖아? 확실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많든 적든 기부금은 어떻게 써야 한다고, 조례 같은 것을 만들었어.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 걸?"

담임을 맡았던 평교사 시절부터 그이에게 "학교를 위해 써 달라"며 봉투를 내놓는 일이 많았다. 교감 시절, 어느 재미동포가 1백 달러를 보내온 적이 있었다. 너무 고마워서 1백 달러 기부금은 자신이 부담하고 보내온 지폐는 아담하게 표구를 해서 되돌려 보냈다. "두고두고 자손들이 볼 수 있도록 잘 걸어 두라"는 편지와 함께.

미국에 건너간 아무개 동문의 아내가 보낸 기부금 사연은 지금도 그이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그 여인은, 아직은 젊은, 미망인이었다. 너무 일찍 사별한 남편이 그리워,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교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사연이었다.

그이의 가슴을 울린 장학금 사연은 또 있다. 동문들이 청하는 자리라면 원근을 가리지 않는 안양 샘의료재단 이사장 이상택 동문의 사연이다.

"이상택이는 참 대단해. 부산에서 개업하고 있을 때, 자신이 졸업한 부산대 의대로 진학하는 후배 한 명을 선발해 주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다 대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어. 장학금은 졸업식 때 자신의 부친이 수여하게 해 달라는 것이지. 부친은 남들 앞에 나설만한 위인이 못 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친께서 직접 수여하게 해 달라는 거야. 참 효자야."

이희문 동문은 모교 발전기금 모금이 자랑스럽고, 모금에 동참한 동문들이 대견하고 고맙다.

친화력, 기획력, 조직력 모두 겸비

모교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무심코 지나치는 법이 없다. 교정에 자라는 나무 한 그루에도 세밀하고 진지하다. 덕형관 옥탑 복도 천정 아래 박아 놓은 덕형관 준공기념동판을 찾아낸 이도 '이희문 교장'이다. 그이의 증언과 찍어둔 사진이 없었더라면 까마득히 잊고 지낼 뻔했다. 방문자들이 관람할 수 있는 역사자료실도 만들었다. 그 자료들은 지금 덕형관 옥탑방 창고에 고물처럼 넙브려져 있다.

김택수 동문과 김영삼 동문이 여야 원내총무로 대담한 기사가 주간한국에 실렸을 때는 그 기사를 전재한 <경고월보>를 자비를 털어 추가로 인쇄해 배포하기도 했다. 후덕한 마음씀씀이는 지금도 여전하다. 후배이기도 하는 제자들이 마련하는 사은모임의 2차를 기어코 감당하기 일쑤이고, 안부를 물어오는 제자들의 혼사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다. 짐짓 짐스럽게 여길까 싶어 청첩을 빠뜨렸다가는 오히려 호통을 당하기도 한다. 용마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을 만큼 열정적이고 애착도 많다.

친화력은 물론이고 기획력과 조직력도 출중하다. 요즈음은, 동창회뿐만 아니라 웬만한 단체도 '000의 밤'을 열고 있거니와, 그 원조인 '용마의 밤'은 1984년 그이가 동창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당시 동창회장이던 송두호(3회) 고문과 함께 개발한 '걸작'이다. 송두호 고문과는 여태도 천형제처럼 지낸다. 특히 평화봉사단으로 모교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쳤고, 모교 생활을 잊을 수 없어 한국사로 전공을 바꾼 '습츠 선생'도 한국에 들를 때면 '이희문 선생님'은 반드시 찾는다.

"한 달에 한번은 가 보게 돼"

이희문 동문이 지나온 80여년 세월에서 용마와 함께한 시간은 얼추 70년이나 된다. 용마에 관한 한, 말 그대로 'Working Dictionary'이다.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몇날 밤을 새워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마적에는 좀처럼 그 보따리를 펼치려 하지 않는다. "동창회보에 실을 것이라면 더는 묻지 말라"며 세 차례나 마다했다. 모교 70년사 편찬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왜 그런지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 이유야 어찌 둘러댐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그이가 가고자 했던 길을 막았던 것은 용마가족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육계에도 커다란 손실로 보인다.

광안리 해변 찻집에서 수평선 쪽을 바라보던 그이가 문득 독백처럼 던지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가슴을 친다.

"어찌된 영문인지, 한 달에 한번쯤은 가 보게 되더구먼… 나를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지만…"

밀양 본가와 해운대 아파트를 오가며 사는 그이가 한 달에 한번쯤이라도 가지 않고는 못 베기는 곳은 어디일까?

모교 경남고이다.

참치사랑

예약문의
(051) 256.3737

대표
유 법 권 (43회)
010.3860.8497
구 자 삼 (45회)
010.4913.9432

경중 '노래교실'에 비상한 관심

신문 – 잡지 보도 이어 TV 공익광고에도 등장

경남중 윤병진 교장의 노래교실 소재로 KNN 제작진이 공익광고를 촬영하고 있다. 아래는 교육부가 발행하는 〈행복한 교육〉 9월호

동창회보 406호가 '학부모와 노래하는 교장 선생님 아세요?'라는 제목으로 경남중 윤병진 교장의 '학부모 노래교실'을 보도한 뒤, 이 특별교실에 각계의 관심이 쏠아지고 있다. 신문과 잡지가 다투어 보도하는가 하면, 마침내 TV 공익광고에 등장하기 이르렀다.

부산일보는 7월20일치에서 "학부모와 자녀 벽 허무는 데는 노래가 최고죠"라는 제목으로 윤 교장의 노래교실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는 "교장 선생님이 운영하는 노래교실은 엽핏 행용모순이 아닙까 생각될 정도로 낯설다. 왠지 교장은 근엄해야만 할 것 같은 이미지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산에서 기타를 치며 학부모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경남중학교 윤병진 교장이 그 주인공"이라고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모교 노래교실에 "10명 안팎이던 학부모들이 점차 늘고 있고, 학부모가 아닌 지역 주민들도 출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노래를 통해 세대 간, 지역 간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윤 교장의 포부도 전했다.

노래교실은 교육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가 발행하는 〈행복한 교육〉 9월호는 "풍기타로 통하는 노래하는 교장쌤"이라는 제목으로 윤병진 교장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행복한 교육〉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를 통해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고, 학교를 신뢰하게 되며, 우리 삶이 풍요로워집니다"라는 윤 교장의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적었다.

"학교 문턱을 낮추니 학부모와의 소통은 물론, 학교에 대한 신뢰는 저절로 따라왔다. 이는 윤병진 교장의 학교경영 원칙이기도 하다. 벽을 허물고 다가가서 조금씩 스스로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학교로 부임한 후부터는 매일 조-종례 시간에 교내방송으로 교가도 내보내고 있다. 이제는 전교생이 교가를 흥얼거릴 정도라고 했다. 교가를 통해 학교사랑이 싹트도록 하고, 학교를 사랑하면 자부심을 갖게 되며 밖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게 윤 교장의 생각이다."

교장 선생님의 풍기타와 학부모들의 흥겨운 노래가 입소문과 함께 매체보도로 퍼져나가자, 이 특별한 '소통 현장'은 텔레비전 공익광고에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유명인이나 집단 등을 소재로 공익광고를 만드는 KNN에서 모교를 찾아 제작 작업을 벌였다. 경남중 시청각실에서 올려퍼지던 하모니가 이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더욱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중국 산동대와 MOU

학술, 예술 등 상호교류 폭넓히기로

경남고와 중국 산동대는 학술과 예술분야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고는 지난 7월14일, 중국 국립산동대학교와 상호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 모교 국산관에서 가진 국제교류 MOU 체결식에는 서강태 교장과 산동대 김태호 한국본부장을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했다.

한중 국제교류 일환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으로 모교와 산동대는 학술과 예술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교류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산동대 국제교류처의 김태호 한국본부장은 산동대의 현황을 소개하고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모교 당국은 중국의 발전상과 관련하여 산동대와의 교류가 재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경중 교직원 연수회 열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등 발표-토의

경남중 교직원들은 9월2일의 연수회가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2015학년도 경남중 교직원연수회가 지난 7월17일부터 1박2일간 통영청소년수련원과 통영시 일원에서 열렸다.

교직원 일행은 17일 장사도해상공원을 유람하고, 이날 저녁 숙소인 청소년수련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전반과 2015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중간평가에 대해 발표와 토의를 벌였다.

연수회는 자유학기제 운영방안의 보고를 받고 교과별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부서별 발표를 듣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토의를 벌였다. 특히 이번 연수회 자료에 "학습의 책임을 묻지 말라.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등 30여개 항목의 '좋은 수업을 위한 제언'이 포함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튿날 산방산 비원을 관람한 모교 교직원들은 멍게비빔밥 등 통영특산 별미로 점심식사를 하고 버스편으로 돌아왔다. 참가자들은 이번 연수에 대해 "의미가 있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용마화음은 언제, 어디서나 으뜸화음

서울용마코러스 정기콘서트, 부산용마코러스 동문합창제
경고합창부, 이태석 동문 추모음악회, 경중 난타팀도 약진

서울용마코러스는 용마가족 범주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고교동문합창단을 이끌며 '음악문화'의 새로운 기원을 창조하고 있다.

지난해 은사와 제자, 선배와 후배가 한 무대에 올라 사상 초유의 하모니 '용마음악의 밤'을 펼친 용마음악이 업그레이드를 거듭하고 있다. 용마음악은 이제 동아리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공연문화에 새로운 메아리를 울리는 시대의 기수로 등극했다.

용마음악을 주도하는 서울용마코러스는 2015년 정기콘서트를 9월24일 한전아트센터 콘서트홀 무대에 올린다. 부산용마코러스도 10월27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부산고교동문연합합창제를 개최한다. 또한 경남고합창부는 11월25일 모교 체육관에서 두 번째 이태석 동문 추모음악회를 가진다.

서울과 부산의 용마코러스는 지난 7월2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7회 7.27정전협정기념 유엔평화음악회에 참가했고, 서울용마코러스는 8월16일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 KBS 광복70주년 음악회에 출연했다. 경남중 난타팀도 동문행사를 비롯해 각종 행사의 초청을 받아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서울용마합창단의 이종순 단장

서울용마합창단을 단련하는 배공내 지휘자

유엔평화음악회의 주역

10개교 연합합창단 240명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7.27휴전기념 유엔평화음악회'는 호국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인 임우근(19회) 전 재경동창회장이 사재를 털어 마련하는 음악회이다. <관련기사 9면>

올해 7회째를 맞은 평화음악회에 용마코러스가 참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였다. 지난 2013년 용마코러스와 부산고, 경기고, 서울고 동문합창단이 펼친 4개교 동문합창제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임우근 동문이 평화음악회에 초청, 협연하기로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대한민국고교동문연합합창단으로 명명된 대규모 남성합창단의 공연은 유엔평화음악회를 대표하는 트레이드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이번 공연에는 4개교 동문합창단을 포함해서 배재, 대전, 양정고 등 10개교 동문합창단원 240여명이 참여했다. 용마코러스는 부산 단원 20명의 원정 지원을 받아 모두 63명이 참여해 연합합창단을 주도했다.

이날 공연은 호국문화진흥위 음악감독이자 국군교향악단 초대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배종훈 씨가 지휘한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진행되었다. 김복희무용단의 진혼무로 막을 연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연합합창단이 남성합창 특유의 묵직한 하모니로 연주한 군가 메들리. 합창단은 광복군 군가인 <압록강 행진>을 비롯해 육해공군의 대표 군가인 <전우여 잘 있거라> <바다로 가자> <빛간 마후라>를 열창해 갈채를 받았다.

특히, 새터민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가 연주한 <아리랑 소나타>가 연주되는 중에 애국가 부분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애국가를 합창했으며, 앙코르 곡인 대중가요 <굳세어라 금순아>가 중장년 남자들의 대규모 합창으로 연주될 때, 관객들은 일어나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한편, 서울용마합창단은 지난 8월16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광장에서 열린 KBS 광복70주년 경축음악회에도 출연했다. 지역, 세대를 망라해 500여명으로 구성된 메머드 연합합창단은 배종훈 씨가 지휘한 코리안 유스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군가 <진짜 사나이> <바다로 나가자> 등을 협연했다.

국내 최초의 '은사 헌정음악회'

이지구 선생, 공연 전 급환으로 아쉽게 불참

이지구 선생과 정성희 선생의 '서울 조우'가 무산돼 많은 동문들을 안타깝게했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에서 만난 두 은사님.

예트스 사태로 6월 공연을 연기한 서울용마코러스 2015년 정기콘서트는 '이지구-정성희 은사님 헌정음악회'라는 부제를 달고 개막된다. 정규 음악과가 개설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중고교 제자들이 음악을 가르친 은사들에게 헌정하는 음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용마코러스 이종순(18회) 단장은 "지난해 용마음악의 밤 공연 때, 지팡이를 짚고 등장한 이지구 선생님과 백발의 정성희 선생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천히 지휘하시고 연주하신 광경은 우리 동문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하셨다"면서 이번 연주회를 두 은사에게 헌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에서 용마코러스는 이지구 선생이 경남중 재직 때 졸업식 노래로 작사-작곡한 <형님들 졸업하면>과 함께 <스승의 은혜>를 특별 레퍼토리로 합창한다.

그러나 이지구 선생은 공연 3일 전인 9월21일 급성뇌장염으로 동아대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어 안타깝게도 참석하지 못한다.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예로운 무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던 이지구 선생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지난봄부터 이지구-정성희 은사와의 상봉을 기다렸던 동문들도 크게 안타까워하며 페유를 빌었다.

한편, 합창단 운영위원회는 9월21일 긴급회의를 열어 "공연에 임박해서 일어난 돌발 상황이어서 충격적"이긴 하지만, 공연은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종순 단장은 "아쉬운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예정대로 헌정음악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종순 단장은 "이제 큰 무대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기량도 많이 발전했다. 80%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광복70주년 경축음악회 등 주요 음악회에 출연하느라 정기공연 준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피아노 반주 대신에 크레아트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데 "음악회다운 격을 높여 보자"는 지휘자 배공내(18회) 동문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랜만에 청중들 앞에 등장하기로 해서 기대를 모았던 테너 정광(16회) 동문도 불의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정광 동문의 특별무대는 무산되었다.

이태석 동문 추모음악제 공감대 모색

'용마음악의 밤' 개편, 동문합창단 초청 연합공연 검토
이태석 추모사업 단체와 접촉, 부산시 당국 협조 필요

'용마음악의 밤'을 계기로 용마음악의 영역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용마음악의 밤'을 진행한 서울용마합창단의 세 주역. 오른쪽부터 김지호 전 단장, 강재민 전 총무, 배공내 지휘자.

'용마음악의 밤'을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이태석 동문을 추모하는 개방형 음악회로 개최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한 해를 걸러 격년제로 부산에서 열도록 예정된 '용마음악의 밤'이 내년 6월로 다가오면서 이태석 동문을 추모하는 한편으로, 용마가족의 경계를 허물고 범부산사람이 참여하는 음악행사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용마합창단 창단을 이끌었고, '2014 용마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김지호(18회) 동문은 서울과 부산의 용마합창단과 경남고합창단 그리고 경남중 난타팀을 아울러 이태석 동문 추모음악회를 마련해야 할 당위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계 동문들의 여론을 모으고 있다.

김지호 동문은 "어떤 형태로든지, 용마가족들이 이태석 동문 추모음악회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태석 동문의 삶이 남긴 뜻을 살피자면 추모음악회가 용마들만의 행사로 국한할 수 없으므로 어디까지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동문들은 서울에서 함께 활동하는 부산고, 경남여고, 부산여고 동문합창단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인원이 이동할 경우에는 준비작업과 진행작업의 부담이 크므로 부산 현지의 인적 자원만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김지호 동문은 "부산지역 고교동문합창단이 연합하는 방안이 실현되려면 부산시 관계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용마합창단 지휘자 이철수(16회) 동문도 최근 이태석 동문 추모음악회와 관련해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수 동문은 김지호 동문과 만나 기념사업회 관계자가 타진해 온 추모음악회 개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용마합창단과 모교 합창단을 포함하여 다수의 성악 전공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추모음악회 개최에 필요한 인적 자원은 충분하다는 게 외부의 평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석 동문 추모음악회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알 수는 없지만 추모음악회를 범시민적 행사로 치르기 위해서는 부산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부산시의 공연문화 활동을 주관하고 지원하는 부산문화재단과 부산문화회관 당국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석 신부 추모음악회는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와 수단어린이장학회 등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그밖에도 천주교 부산교구의 이태석 신부 참사랑실천사업회 등 종교단체와 기념사업단체에서 자선음악회 등을 열고 있고 이태석 신부를 추모하는 청소년음악회도 열리고 있다.

부산에서도 고교동문합창제

용마팀 주관, 10월27일 부산문화회관

부산용마합창단은 단원모집에 애를 쓰며 지역사회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안창범 단장

부산에서 활동하는 고교동문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합창공연을 가진다.

부산용마코러스가 주관하는 제1회 부산고교동문연합합창제가 오는 10월27일 저녁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첫 무대를 연다. 이번 합창제에는 용마코러스와 경남여고와 부산여고, 동래여고 동문합창단이 참여한다.

공연은 4개교 동문합창단의 개별 공연으로 진행하고 피날레를 연합훈성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용마합창단은 <Ring de Benjo> <우리는> <A-Roving>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를 연주하며, 남성중창도 겸들인다.

한편, 부산용마코러스 안창범(18회) 단장은 "경남중 난타팀과 경고합창단 후배들을 초청해 무대를 주선할 계획이었으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되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특히 경고합창단 공연은 모교 합창단을 지도하는 김영미 교사가 평소 "재학생들이 큰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서 주선하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안창범 단장은 "부산고동창회에 동문합창단 창단을 독려했으나 성사되지 못해 남자고교는 용마코러스 단독으로 참여하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 단장은 "용마코러스 활동이 활발하게 지속되어야 후속 창단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동문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부산용마코러스가 독자적인 정기공연회를 꾀하려면 최소한 10여 명 이상의 단원을 충원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석 추모음악회 11월25일

경고합창단, 단원-기량 동반상승

경고 재학생 후배들이 지난해 뜻깊은 '이태석 신부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지난해 첫 공연을 열어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태석 동문 추모음악회가 올해도 재학생 후배들의 정성으로 다시 마련된다.

오는 11월25일 모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추모음악회는 모교 합창단을 중심으로 동아리 '스마일 본즈' 등이 합창과 중창 등을 연주하고 추모시 낭독 순서도 진행한다. 지난해 추모음악회에는 서강태 교장이 이태석 동문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사랑해>를 불러 이채를 띄웠다.

모교 합창단을 지도하는 김영미 선생은 "경고생들은 음악적 재능을 전수받는 듯해"고 말한다. 김영미 선생은 남성합창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음악담당 김영미 교사는 "합창단 단원이 50명이 넘을 만큼 학생들의 열성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기량도 뛰어나 기대해도 좋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김영미 교사는 지난 8월16일 방영된 KNN의 '틴틴 콘서트'에서 모교 합창이 부산고 기타합주를 완전히 압도했다고 전하면서 "경남고 학생들은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전통을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부산을 호국문화의 허브로 키우고 싶다"

"Freedom is not free!" 신조로 호국문화 선도하는 임우근 동문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처럼 큰 힘과 용기를 줄 때가 있다." 시인 정호승이 그렇게 말했다. 지난 7월25일 서울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올해로 일곱 번째 '유엔평화음악회'를 마련한 호국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임우근 동문에게 "왜, 어떤 연유로 유엔평화음악회를 열게 되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시인 정호승이 말했듯이, 아주 짧은 한마디를 털어놓았다.

"Freedom is not free!"

이 한마디는 미국 워싱턴 링컨센터 곁에 조성된 '한국전쟁 추모공원'의 검은 대리석 벽면에 새겨진 것이다. 얼추 20년 전쯤에 발견한 한마디였다. 그때 온몸을 덮친 엄청난 전율을 그는 결코 떨쳐내지 못했다. 유엔평화음악회는 그가 10년 넘게 앓아온 그 나름의 '열병'을 치유한 묘약인 셈이다. 그런데도 그 묘약을 찾아낸 그의 소회는 의외로 담담하고 소박하다.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도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해마다 수억 원이 소요되는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그가 꼭 하고 싶은 말은 "고맙습니다!" 한마디일 뿐이다. 그 고마움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구구하게 부연해 설명하지 않는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전쟁 추모공원 비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기 때문일까?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1950 – 1953"

첫 연주회에 6천여 관객 눈시울

7.27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기념하여 열리는 유엔평화음악회의 내력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주 어울리는 지인들과 가진 저녁자리. 그 자리에는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지휘자 배종훈 씨도 함께했다. 오스트리아 국립음대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미국 UCLA에서 지휘로 석-박사학위를 받은 배종훈 씨는 임우근 동문의 아우인 임창윤(28회) 동문과 LA에서 교회를 함께 다닌 사이였다. 두 동문 형제는 배종훈 씨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부산은 자연적 인프라도 풍부하지만, 근현대사 유산은 국내 어느 도시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을 살려내지 못해 안타깝다."

그날 저녁, 모임을 함께한 사람들의 의기가 투합했고, '국가와 공익을 위한 음악활동'이 태동되었다. 배종훈 씨는 임 동문이 운영하던 기획사 아이레네의 음악감독을 맡아 그해 10월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열린 유엔참전용사 추모 음악회를 지휘했다. 광장을 가득 메운 6천여 관객이 눈시울을 붉히며 감채를 보냈다.

그날 공연은 또 하나의 결심을 낳는다. 2010년에 창단한 국군교향악단이 그것이다. 육-해-공-해병대에 복무하던 기악 전공자들에게, 여타의 군악대와는 전혀 다른, 국군교향악단(98인조)은 복음이었다. 배종훈 씨는 무보수로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았다. 9박10일간의 미국 순회연주도 감채를 받았지만, 국군교향악단의 연주 가운데 2011년 9월25일, 미국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에서 열린 함상 연주회는 압권이었다.

'Turn toward Busan'에 주목

고마움의 표현 방편으로 출발한 유엔평화음악회는 '유엔과 평화'라는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음악회인 만큼 예술적 가치 못지않게 감동적 연주라는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지난 7월 공연에 서울용마고러스를 포함하여 10개 남자고교 동문합창단이 협연한 것도 전쟁과 평화를 메시지로 삼는 이 음악회의 케릭터를 강화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2013년에 용마고러스와 부산, 경기, 서울고 동문합창단이 선을 보인 고교합창제의 성공이 덤으로 거둔 수확이었다.

외적 발산형보다 내적 침잠형에 더 어울리는 그가 음악활동의 후원자로 활약하는 것이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메시지를 치밀하게 구상, 설계한 다음 실행하는 성향임을 이해한다면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영감과 끼가 굉장하다"는 배종훈 지휘자의 코멘트도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이마적에 임 동문이 새삼 부산을 주목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경남 통영은 윤이상음악제로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다듬었다. 부산은 통영보다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자연적 인프라도 풍부하지만, 특히 근현대 유산은 국내 어느 도시보다 월등하다. 그런데도 이들을 잘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그는 해양수산업계 경영인답게 북항 재개발에도 관심이 많다. 부산의 역동성을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명당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그는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을 다시 살피고 있다.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인 '유엔묘지'는 그의 영감과 끼가 무궁무진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다. 부산사람들이 잊고 사는 데 대한 임 동문 나름의 반성임지도 모른다.

지난 2007년에 캐나다의 어느 참전용사가 제안해 이제는 세계적인 이벤트로 도약한 'Turn toward Busan!'을 주목한다. 우리가 '빼빼로 데이'라는 상술에 파묻혀 소동을 벌이는 그날 – 11월 11일 11시 –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인들은 "부산을 향해 묵념을 올리자"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8년부터 국가기념행사로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부산을 향하여!"를 화두로 삼아 'Return to the Busan'을 도모하고 있다. 부산을 호국문화진흥위원회의 '허브'로 가꾸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해운대에서 성장한, 지휘자 배종훈 씨도 뜻을 같이한다.

이태석 동상, '성찰의 집' 조성 주인공

최근 동창회 모임에서 그는 "그동안 회사 일로 동창회에 소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폭풍으로 국내 수산업계를 덮친 '쓰나미'를 임 동문 역시 피할 수 없었던 것. 큰 고비는 넘긴 듯, 자갈치시장에서 만난 그는 대체로 평온해 보였다.

임우근 동문은 재경동창회장을 맡아 굵직한 업적을 두루 남겼다. 이태석 동문 동상 건립과 한국전쟁에서 산화한 용마들을 추모하기 위한 '성찰의 집' 조성 사업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이다. 두 기념물은 등록문화재 덕형관과 함께 명문의 심볼로 자리잡고 있다. 거기에도 그가 보답하고자 하는 '고마움'이 깊이 배어 있음은 물론이다. 부산을 '허브'로 삼아 뻗칠 호국문화의 청사진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레지던스 호텔 블루오션뷰(진하해수욕장)

대표 김 종 권 (29회) 010.2927.0811

▶ 각종 모임, 세미나도 대 환영 ◀

www.blueoceanview.co.kr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변길 74
TEL. 052-238-0006. 070-8873-7533
FAX. 052-238-7533

경남중 바둑부 창설된다

한국기원 창단 지원 수용해 이번 학기 출범 예정, 경남고도 창단 검토

예스24배 고교동문 바둑대회 패권을 차지한 용마바둑이 경남중 바둑부 창설로 도약을 이룰지 주목된다. 한국기원과 부산바둑협회가 경남중이 제시한 창단 조건을 수용하기로 해서 이번 학기 중에 바둑부가 창단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중 유병진 교장(사진 가운데)과 진연호 교감(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강지성 사범(사진 왼쪽) 등 바둑계 인사들과 창단을 협의했다.

모교 역사상 처음으로 경남중학교에 바둑부가 창설된다.

경남중은 한국기원의 창단 지원 제의를 받아들여 이번 학기 중에 바둑부를 창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남중은 야구선수와 함께 바둑선수도 특기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경남중 윤병진 교장은 지난 9월10일, 모교를 방문한 한국기원과 부산바둑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바둑부 창설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모교가 제시한 지원 조건을 한국기원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바둑부 창설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남중 당국이 제시한 창단 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담코치 확보 문제이다. 특히 전담 코치의 지도비를 누가,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것. 경남중 당국은 자체적으로 코치 인건비를 충당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원은 창단 지원금으로 코치 지도비 3개월분 600만원과 장비 구입비 300만원, 훈련비 200만원 등 1,1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중 진연호 교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특기생을 선발하는 운동부를 지원하기 위해 순회코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바둑부의 경우는 순회코치를 파견할 계획이 없다. 소년체전에서 입상할 경우이거나, 입상이 유력하다고 판단할 때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월 200만원 내외에서 등급별로 코치 지도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경남중 바둑부가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딸 때까지 순회코치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원은 창단 지원비 이외에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한국기원 전문기사 강지성(9단) 사범이 당분간 무보수로 지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강지성 사범은 현재 부산에서 한국기원 연구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모교 당국과 한국기원은 경남중 바둑부 창단 멤버 후보들의 학부형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대로, 특기생 3명을 선발해 바둑부를 창단할 예정이다. 경남중은 바둑부가 설치되면 해마다 특기생 2명 내외를 선발할 방침이다. 윤병진 교장은 "바둑이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희망하는 재학생들에게도 바둑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강태 경남고 교장도 경남중 바둑부가 창단되면 경남고도 바둑부 창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용마바둑계에 새 기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고는 2013년 용마대표들이 예스24배 고교동문바둑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계기로 용마바둑회 김대욱(29회) 회장이 후원하는 바둑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용마바둑은 강철민(11회, 작고) 양건모(14회,작고) 복흥수(14회, 5단) 동문 등 프로기사 3명을 배출했고,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12회) 동문이 한국기원 부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농심 사장 박준(20회) 동문이 농심신라면배를 창설했고, TM마린 대표 김대욱 동문이 대주배 시니어기전을 창설했다.

木泉花園

代表 金 佶 秀 (25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0번지
양정꽃시장 4층 13호
TEL : (051)868-4601~2
FAX : (051)868-4603
H·P : 010-4552-7272

제 여식들의 배필을 찾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회 김영창입니다.

저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등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30년 다니다가 수원지원장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직하여 현재 심평원 시니어클럽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68세로 칠순이 내일모레로 다가오니, 실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려 봅니다.

저에게 과년한 여식이 둘 있는데, 조만간 결혼할 만한 인연의 끈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의뢰해 보려고 했지만, 가족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한사코 반대하고, 동기생 친구들의 자녀 대부분이 결혼한 터라, 이제 술자리에서도 혼사 얘기가 뚝 끊어져 여식들의 결혼을 거론하기는 더 난망한 실정입니다.

작은딸은 1986년생(31세)으로 고려대 인문대를 나와 S전자에 입사하여 4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에 대리직으로 승진하였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사생활을 누릴 여유가 적은 탓인지, 여태 교제해 본 사례도 없습니다.

총명함이 묻어나는 면모와 활발한 성격으로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큰딸은 1980년생(36세)으로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장학생으로 인문계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은 한국인이 거의 없는 데다가, 공부에만 열중하게 되니 교제할 시간도 없는 모양입니다.

현모양처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키도 165cm 정도로 준수하고 항상 정이 넘쳐납니다.

과년한 딸을 둔 아버지로서 점점 세월만 가게 되니, 동문님들의 도움을 빌어 볼까 합니다. 선후배님들께서 헤아려 주신다면 제 가족들도 기꺼이 따르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기도 죽전에 살고 있습니다. 동문님들의 연락을 고대합니다.

김 영 창 (20회)

연락처 _ 010-8270-7093 / kycma@hanmail.net

2015년도 회보 구독료 보내주신 동문

*( )는 선납부자 ● 총 2,642명 2015. 9. 4.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 · 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15년 구독료(년 3만원)을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028-01-032909-1
예금주 :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2회(1명) 박기화
3회(12명)
김인조 김희철 류영렬 문병집 박영희 송두호
윤태윤 이 경 이안규 하태모 황기대 황성남
4회(21명)
김경식 김기홍 김용욱 김용해 김종호 김주호
김회수 박석만 박홍기 송호길 양종학 윤욱경
이남규 이봉주 임영수 장수호 정상현 정순모
정치근 조성입 황감생
5회(19명)
김균석 김석호 김영복 김은규 김인택 김재관
김진휴 김형대 박장후 박종구 상기중 유병한
이경욱 정인조 정진우 진도영 최영철 최종기
홍관식
6회(26명)
김윤용 김종철 김태곤 김태환 노재형 배문수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염희성 오영은 유상환
이강윤 이길상 이해춘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상철 정승화 조윤승 최갑영 최석원
최인갑 최한병
7회(35명)
강병회 강창구 구택용 김갑성 김광욱 김명관
김삼현 김영민 김용우 김종순 김중경 김진홍
김태배 남홍우 노상석 류상남 박세량 박영섭
박환배 배석조 소진은 송외득 양종완 오동환
오장은 윤진현 이동우 이창범 임성극 임의택
정성보 조덕찬 하석준 함홍주 허종호
8회(39명)
강성태 구본섭 권순겸 김영철 김영환 김재범
김진석 문동현 문창화 박동열 박우상 박재범
박희욱 배기현 배덕수 배주원 백낙오 서진근
안종열 엄덕양 이상복 이유환 이윤조 이정윤
이종택 이준혁 이춘기 이현문 이호수 이희순
이희욱 정금출 조성래 조윤제 지창수 최윤식
최재혁 홍광수 홍기성
9회(46명)
강영진 고수홍 권영대 김경회 김성탁 김영국
김영문 김용환 김이도 김정구 김종호 김종호
김철규 김 청 노도현 박남수 박당희 박영복
박화철 서해량 성백규 신용익 안규현 안병환
원중희 유금열 유병철 윤성태 윤일명 이기주
이대규 이동현 이주한 이홍수 장동근 전인규
정 목 정민주 정일효 조이호 지삼봉 최성욱
최위철 하재환 한동대 한득추 **(박화철 2016년)**
10회(51명)
강희윤 고광수 권용술 김계순 김기호 김문희
김상규 김선동 김성규 김연수 김재곤 김종술
김창덕 박경수 박재경 박철민 배길순 신규태
오강욱 우병윤 윤영태 윤우성 윤재모 이계창
이근태 이민섭 이봉원 이상배 이승영 이언희
이재순 이정호 이현수 장기상 장창구 전영대
정무길 정종만 조길수 조상진 조양제 조종제
진 강 차동렬 최병도 최성엽 최순진 하영수
허영백 허영오 황정조
11회(79명)
강병희 강용대 고한준 공상기 곽정출 곽태엽
권병용 김기주 김달경 김무룡 김병기 김삼진
김성규 김영식 김욱실 김용만 김용정 김윤택
김인섭 김재환 김중하 김태원 김태호 김학수
김항곤 김효민 박관호 박봉흠 박성우 박수경
박용관 박종환 박창순 박태오 박희태 백금덕
백우청 서영호 서자윤 서진갑 성기득 신유기
신현석 심재룡 염한호 오길춘 오정광 유홍종
윤태원 이계찬 이균우 이상철 이상태 이성길
이성우 이세영 이재진 이종문 이종백 이종범
이태순 임근호 장세원 장영권 정광웅 정운표
제정오 조동준 조양현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득호 최성욱 최태원 표학배 현정춘
홍순문 **(박희태 2017년, 조동준 2016년)**
12회(82명)
강본순 강창수 공 문 곽진영 구진웅 구창회
권언호 김기인 김동열 김두수 김명회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렬 김석곤 김선입 김수원
김영수 김우성 김원경 김장욱 김정현 김종련
김종수 김종일 김지회 김진갑 김철기 김현주
남기용 문재권 박순국 박용운 박재영 박정윤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백승균 변동만 서병기
손제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안용득 엄태섭
오세정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성대 이수영
이승태 이용언 이용희 이원우 이일쇄 이준복
이현담 임우영 임정명 장동석 정광삼 정대식
정동식 정수복 정영철 정외철 정호중 조한기
조홍래 지수남 차민도 천금태 최신일 한형수
홍두표 홍영석(100만) 홍용하 황태영
(김영수 2016년)
13회(96명)
고송구 고시준 구문꽁 권영계 권영채 김광수
김동호 김무조 김민철 김상치 김신부 김영길
김영호 김장웅 김정균 김정성 김정일 김정태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김형태 김홍철 노경규
문 창 박건일 박민보 박인남 박영주 박원길
박정웅 박종탁 박진태 박홍입 박홍표 배정운
백길오 서시주 송신의 송창식 [illegible] 신동배
신동조 신 명 신민철 신하근 심영수 안준수
양길승 오원수 오한수 윤기갑 윤영우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명진 이상문 이상택
이성빈 이종달 이종입 이준범 이창성 이창엽
이창호 이철세 임소철 임영홍 임홍조 장영길
장용웅 정도상 정연호 정영호 정영화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동구 조병성 조용갑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번영 최상호 최태환 최 혁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정대
(양길승 2016년, 이경재 2019년)
14회(86명)
강수현 강주신 강봉삼 강휘주 권근술 권 명
권정혁 김경수 김도선 김동화 김무남 김의웅
김재도 김준우 김창기 김태희 김형수 김화욱
남기우 노수덕 류종입 문운용 박남조 박동수
박만인 박순일 박진재 박해동 박효건 배남순
백태우 손광웅 손영복 송재현 신기석 신준호
신현호 안명수 양정우 오종철 오태홍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길미 이동식
이동영 이명재 이수남 이재돈 이진우 이창언
이창화 이현영 이환균 이효근 이춘일 장삼식
장우일 전병순 전재수 정선언 정시영 조광명
조규항 조상원 조영봉 조정현 진성태 최낙섭
최병태 최성웅 최충탁 하광진 하문수 하찬봉
한규환 한문식 한수길 허 중 황수길 황원재
황준성 황홍석 **(이수남 2016년)**
15회(83명)
강무상 강무송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고석기
고태언 구명준 김경일 김갑영 김대석 김명배
김상차 김소현 김송평 김쌍엽 김양정 김엽춘
김욱규 김윤배 김정환 김종태 김종한 김중광
김관열 김황영 남기주 남완순 노기수 박복만
박영길 박영무 박종석 박철양 배성춘 백승진
서영진 손부홍 송길웅 신용기 신현영 오봉석
윤우경 윤휘정 이선공 이승남 이승우 이영정
이의일 이재원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일
이종희 이 준 이철성 이태창 임영길 장종호
장호조 정동포 정욱종 정준수 정행남 조상호
조영일 조일팡 조진환 천신일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진모 최창석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허경도 허광길 홍익찬 황건세 황중부
(임영길 2022년)
16회(92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원경 강인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길정 김덕찬
김두응 김박일 김상웅 김승호 김양화 김용환
김응진 김인국 김일규 김정우 김정호 김 조
김종덕 김철곤 김충길 김태일 노상현 노원소
문성환 민신웅 박두영 박영기 박용입 박정욱
박종봉 박춘호 박 홍 방수근 배정호 배정희
서정호 서태복 서효조 성기식 손송방 손용석
손한조 송규정 송자문 안국정 양성민 여성국
예광해 오형철 옥무웅 옥윤석 윤세진 윤효주
이겸일 이경환 이규방 이길홍 이병립 이무근
이무영 이성남 이성인 이양근 이영재 이종승
이채언 이청원 이효일 임승언 장사충 정영일
정우광 정원철 정일성 정태습 조길우 조원제
지수신 차상영 채경입 최정일 하주엽 하희진
한입방 황규호
(민신웅, 이영재, 조원제, 황규호 2016년)
17회(75명)
강정은 강무웅 강병문 강정일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부근 김상천 김용구 김용남 김용정
김재봉 김정남 김준언 김준위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김충겸 김효남 박가식 박신도 박영일
박인사 박재구 박종구 박 찬 박청홍 박홍식
배재욱 서정승 서창석 송부웅 송승구 송유근
송인문 신 종 신홍규 심문섭 양원모 옥영관
우기남 윤성욱 윤수성 이국남 이수창 이의종
이재형 이정보 이주봉 임우택 장길성 장승구
장응석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기태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재근 정태일 제양성
조증언 조진웅 천용광 최성호 추봉실 하영수
허진룡 현태일 황성진
18회(90명)
강대원 강덕웅 강만수 강성태 강승무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곽병태 구영곤 권영대
김경겸 김경권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사권
김성건 김성준 김영국 김영욱 김영철 김욱길
김용기 김용이 김재창 김정배 김종상 김종철
김지호 김형윤 노정규 류종우 문재빈 박건태
박기일 박기주 박노숙 박대웅 박동오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영입 박용주 박용혁 박종구
박종만 박준성 박현태 박호성 배공내 백승래
변호인 서부원 서재봉 손찬규 신인환 안창범
양세수 오재동 우원호 윤봉수 이긍희 이대운
이승춘 이형석 임채영 전기준 전병희 전상곤
전영석 정구홍 정우용 정재호 정태섭 조성재
좌경용 주상섭 지문석 천두갑 최진수 최희영
한기대 한기철 허만조 허성태 허태엽 홍정표
(박기주 2017년, 김형윤, 박건태, 좌경용 2016년)
19회(105명)
강동완 강준권 강환섭 고광호 권정덕 김경우
김경재 김규욱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구 김석윤 김성봉 김성욱 김성희
김순호 김양규 김영우 김영탁 김윤기 김일천
김재근 김정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철호
김호철 남기진 남진현 남태현 노덕현 박갑진
박상식 박성근 박성철 박종화 배무삼 백종무
서세복 서승성 선우일남 성환진 손기태 손철수
신동인 신봉문 신윤철 신필엽 안정모 오입환
오태수 옥인영 우치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기주 이명환 이병구 이상만 이상우 이선명
이양환 이용우 이용조 이용흠 이장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흠 이춘만 임장주
임채원 임태석 장성규 장조훈 전영석 정규병
정규영 정극수 정덕한 정용식 정원찬 정윤영
정태을 조경래 조성환 조재윤 진수상 최경석
최화익 한명섭 한종환 허남겸 허홍욱 홍성봉
홍승표 황태경 황태원 **(오태수 2016년)**
20회(88명)
강병천 강부덕 강석근 강현진 구영남 금석주
김대업 김두영 김명표 김병문 김성환 김세준
김순신 김영창 김영철 김우홍 김원갑 김윤태
김일석 김정환 김조동 김종민 김진환 김철영
김태영 김한성 김한원 김형기 김홍직 김화식
남기석 목입진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민형기
박욱양 박용덕 박재봉 박 준 박현렬 배서호
백완균 백창엽 서상희 석광덕 설창환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양승태 양태윤 오경석 오기현
옥성만 우성하 유근준 윤병규 이병기 이석창
이실근 이영오 이우종 이응현 이정식 이천규
임성춘 임세호 장상배 전일준 정규식 정병순
정세현 정승창 조영철 차용환 채경석 최명호
최상인 최성배 최인식 최장하 최중경 최 철
한개정 허규만 허남균 홍순태
(오기현 2016년, 강병천, 양승태 2017년)
21회(93명)
강민우 강삼태 강수경 강순석 강창수 구본능
구현수 권용효 김귀경 김기현 김대웅 김동우
김문성 김병혁 김상덕 김상하 김석배 김영수
김유건 김익수 김조영 김창수 김현태 김형동
박명문 박명욱 박봉흠 박상기 박성렬 박임송
박재선 박주용 방효상 배영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상철 성정근 신태윤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거돈 오태규 우종득
육화원 윤상철 윤승근 이동채 이동춘 이명환
이문수 이성집 이순희 이영훈 이익규 이재택
이재호 이재홍 이종상 이 혁 임경범 장정표
장 호 전기환 전우성 정대원 정상인 정연호
조덕준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국 조호제
진영천 차동민 최규용 최낙환 최동완 최민석
최수명 최원종 최은영 최재봉 탁원명 한승현
허영도 허창수 황활웅 **(조호제 2016년)**
22회(108명)
강상대 강호일 강화복 고병호 고인준 구자룡
권성술 금병환 김광국 김도삼 김동명 김동욱
김동진 김명수 김무술 김석영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순혁 김영진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입준 김정곤 김정민 김종인 김진영 김진철
김철현 김학규 김해현 남백우 노평호 박광용
박봉석 박상갑 박승목 박언표 박재구 박재상
박준호 박찬명 박행천 박호병 박홍조 배춘식
배춘영 백봉주 변대석 변종호 부창전 서항용
손병용 손용섭 송기영 송현준 안영수 안진환
엄남기 오세길 유재탁 이경상 이병수 이상혁
이영화 이웅규 이원정 이윤제 이인규 이철응
이홍기 임강택 장광춘 장무성 장상규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전길홍 전민수 정근화 정남식
정상수 정진식 정해진 조봉국 조순태 조장현
조정규 조홍기 주성민 주우실 최성엽 최학봉
하성일 하현성 한군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 온 허인석 홍순욱 홍태구 황영환
(허범도 2016년)
23회(108명)
강구현 강창보 구영수 구자섭 권오종 김건일
김경섭 김상수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영목
김영철 김영화 김영훈 김윤관 김익곤 김정팍
김정한 김종훈 김주찬 김중광 김진엽 김태용
김태정 김태홍 김택수 남상룡 도명세 문규철
문병욱 문영신 문창호 박광규 박대동 박동현
박수갑 박인권 박철병 배준석 백창영 변상식
서상병 서승환 서영수 송영춘 송은재 송충송
신경재 신상희 신언극 신해철 심수병 안범두
안병관 안병율 오만석 원인건 유석산 유원형
유진무 윤길원 윤병조 윤순현 윤종관 이덕남
이동성 이문희 이병찬 이상렬 이상수 이상운
이수백 이승현 이영재 이영흔 이용원 이인택
이정욱 이충덕 이충호 임봉학 장기원 장동국
장백기 장병규 장천규 전상대 전원익 전재홍
정귀출 정기웅 정상건 정용호 정희원 조완제
조장래 조한용 조현표 채행윤 최영목 최인식
최호덕 하승윤 한윤길 허근창 허병상 허연욱

우리 동창회는 회비와 협찬금으로 운영됩니다

2015년 8월31일 현재 회비 수입과 분담금 수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회비 23회 3,000만원

◉ 자문위원 100만원
송규정(16), 김길제(18), 조성재(18), 박용덕(20), 임경범(21), 박재상(22)

◉ 부회장 200만원
박종찬(25), 송정규(25), 박상호(26), 박성철(29), 김현태(30), 류병석(31), 박병진(33), 이양걸(41)

◉ 부회장 100만원
문규철(23), 백창영(23), 이문희(23), 최호덕(23), 곽두희(24), 박창호(24), 서병수(25), 최동하(25), 구영소(28), 최강호(28), 박창언(29), 서하수(30), 윤성덕(30), 최우철(30), 박종호(31), 손영태(31), 이병태(31), 홍성수(31), 김범영(33), 류장근(33), 김현용(34), 이진호(34), 장인화(35), 김종일(36), 윤경만(38), 박인석(39), 우영환(40), 박형규(43)

회비수입 합계 8,000만원

◎ 기별 분담금
18회, 20회, 21회, 23회, 25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33회, 34회, 40회, 41회, 43회, 49회 (2014~2015년분), 50회

◎ 야구 후원금
18회, 20회, 21회, 23회, 25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33회, 34회, 40회, 41회, 43회, 50회

(김태용, 이승현 2016년)

24회(116명)
강경환 강기중 강동우 강영창 강정원 강청흠 공문수 곽두희 구본엽 권수찬 권영기 권해영 김경남 김동운 김동진 김명배 김병수 김성득 김성출 김승탁 김영민 김영식 김영철 김은섭 김윤수 김인구 김인철 김정신 김종환 김진윤 김학성 김현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문섭제 문휘영 박극제 박병렬 박성표 박윤성 박재춘 박정문 박창종 박창호 박홍규 배종갑 백신흡 백윤택 변용준 변정규 서손상 서정대 서정득 석문식 손성호 손세영 손인수 손종식 신장우 안형수 양순권 여욱주 여희우 원동희 윤석만 윤재인 윤지현 이기원 이동진 이명규 이상우 이상찬 이상학 이석우 이 수 이영준 이영태 이재성 이정희 이종구 이창우 이현국 이효구 임덕철 임민호 장세호 장원서 장인복 전대현 전용우 정동수 정명근 정명동 정윤상 조병제 조영수 조용건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조현찬 주승환 주정규 지인덕 진병건 차문공 최석구 최진우 최현규 하 욱 하재갑 하희조 한상렙 홍용기 황성훈 **(박극제 2016년)**

25회(97명)
강용주 고병식 곽동원 권수갑 권태용 김건우 김경환 김구화 김길수 김남일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국 김상겸 김상수 김상림 김수곤 김수석 김영수 김영익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이수 김종국 김종윤 김종현 김철수 김태선 박경립 박광용 박덕배 박동건 박세철 박영하 박윤영 박인동 박종기 박종찬 배대관 배동명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석창재 손국영 송기현 송세경 승효상 신경학 신성기 안희석 예종복 오양득 우진대 유용기 윤순기 이근만 이대우 이동익 이명철 이상훈 이재욱 이천행 이창훈 이태식 이홍성 이홍익 임상택 전성태 정윤철 정철수 조경규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양제 조 익 조판제 주재겁 진익철 차인재 최동하 최종덕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하성룡 한준석 허영형 허 택 **(김용범, 엄수훈 2016년)**

26회(104명)
강도식 강영녕 강영원 강용수 고석훈 권해국 김기표 김두현 김상현 김수인 김영섭 김원정 김윤철 김재용 김정원 김종배 김종우 김태규 김택영 김 형 김효용 노영석 민창현 박경재 박동조 박두식 박상호 박상호 박오육 박원상 박의영 박재욱 박종국 박종호 방흥기 배갑상 배용호 서준희 서치호 서현수 성백운 성재일 손영수 손욱호 신기용 신대철 신동춘 신재호 안겁효 양국명 양지영 양희권 왕정일 왕효석 유근욱 유경일 윤수현 윤승용 윤종섭 윤흥석 이경호 이규생 이규용 이동일 이명진 이상원 이성만 이승루 이재봉 이정곤 이종욱 이창식 이현섭 이희준 임철호 임형규 장경재 장만욱 장성지 정국근 정승규 정이교 정현준 조만석 조일제 주규철 최낙준 최명해 최성락 최성수 최윤범 최응락 최의수 추기복 하성봉 하원규 하주곤 한석푹 한원우 현동우 홍순하 홍형택 황광수 **(임형규, 이종일 2016년, 이상원 2019년)**

27회(72명)
강문중 강봉호 강태영 김강호 김경진 김광익 김근우 김명기 김민수 김병욱 김병추 김상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인곤 김종준 김진명 김태우 김학희 김효균 김홍근 김환엽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병주 박영빈 박영종 박종국 박찬석 박치호 배효택 손정식 신한원 안종택 양태종 오용환 유성모 유영상 윤모성 윤문태 윤일근 윤정환 윤종락 윤지한 이광남 이민부 이성득 이순걸 이요섭 이인규 이재덕 이종경 이천식 이 헌 장인철 장창조 장해성 전 풍 정남근 정철길 조명진 조민제 조봉관 조우영 천우태 최명권 최용호 최휴진 하창우 한수길 **(김상문, 문성기 2016년)**

28회(85명)
고 진 고창준 구영소 권태세 김관세 김만종 김부윤 김선경 김시영 김영철 김용섭 김인준 김정유 김준연 김창준 김태완 김태훈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민교식 박병곤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일경 박재훈 박종기 박진국 박진화 배효진 백두현 백영호 서기희 성락문 손광락 신중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오현석 오효석 옥상곤 유봉수 윤경섭 윤대주 윤덕승 윤일희 이경포 이민우 이승하 이양훈 이윤규 이종대 이춘성 이현종 이흥오 임영태 임재덕 장재용 전광병 전남실 전병철 전재만 전진학 정두현 정방동 정인식 정해영 조대현 조석태 주종복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욱 최한웅 한명재 한봉석 한영호 허남식 허명근 황인업 황장두 **(안 풍 2022년)**

29회(95명)
강대용 강희철 권오영 금시환 김기수 김기영 김기원 김대영 김대욱 김병욱 김성문 김 영 김영훈 김용환 김인슬 김재현 김정규 김정암 김종진 김철오 김태완 김호성 박경환 박국인 박근우 박동일 박동흡 박문규 박병률 박병태 박성철 박인평 박창언 박철환 배진영 배현호 백성욱 변종만 서광은 서봉교 서석희 손태권 손홍근 송경문 신호범 안철홍 양승오 윤석희 윤 욱 윤종경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상용 이석조 이수돈 이승호 이영우 이재성 이정윤 이준환 이진욱 이효근 임무택 임상훈 장강태 장 만 장현경 전장화 전정국 정 길 정대현 정 란 정세영 정윤수 정희용 제영권 제철수 조승제 조창업 조한욱 주재휘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병수 최병오 최원락 최정만 최종열 한만수 한승경 현제성 황병균 황유명 **(박창언, 서병교, 최명오 2016년)**

30회(98명)
강석철 구윤석 구형건 권상기 권용택 김경수 김계형 김관일 김규성 김기수 김기업 김백수 김상현 김성복 김성은 김영욱 김영일 김영호 김용한 김욱성 김유기 김인섭 김재수 김재일 김종진 김혜곤 김현태 남영효 노동춘 도문성 박상국 박수송 박원호 박인달 박재백 박정국 박중배 배경조 배기경 백기언 서강태 서민석 서복현 서하수 석대식 송한식 신구균 신윤원 신인기 심풍수 안종화 오충조 옥유전 유영복 유재일 윤인태 윤종순 은창용 이기환 이동근 이명건 이수성 이영준 이인호 이종욱 이종훈 이진걸 이형호 이태봉 이하수 이한수 이호걸 이호준 인준승 장봉규 장석일 장호영 장훈상 전경재 전대열 정경복 정광덕 정기룡 정부광 정승진 정영호 정태환 조순영 조재성 채영재 최기훈 최우철 최진곤 하규양 하영동 하재명 한효용 황희민

(권용택, 김경수, 김영일, 오창조, 이인호, 이한수 2016년)

31회(73명)
강대석 강도진 공종렵 김기정 김 만 김명우 김시현 김영철 김영학 김정덕 김종근 김종호 김태근 김현주 김형수 김효연 남기태 남희우 노성현 류명석 문성일 민종현 박종건 박종규 박종호 박준석 박춘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서규영 서동규 서태교 성락순 성보경 손영태 손은정 신상하 신수열 신용렵 심규열 심재구 안중수 여상찬 오민일 오용환 옥치호 이해철 이병곤 이병태 이상일 이성식 이승원 이승진 이원태 임종태 정용정 정철수 조성근 조영기 최문상 최인복 최재선 최재식 최진섭 최혜영 허명수 허병관 허학렵 한문성 한영오 허일현 홍성수

32회(42명)
강기상 김광기 김상범 김소용 김영길 김 욱 김종주 김종판 김창범 마승철 박상학 박영욱 박종구 박진원 손병철 송승익 신국선 신철호 신한국 양문성 양성기 양한광 우득현 윤종열 이문영 이병준 이병훈 이재수 임채균 정성수 정용운 정의주 정재종 조준현 최승찬 최영훈 최종호 최춘호 허수철 허 정 황문성 황성범 **(승승익 2019년, 최승찬 2016년)**

33회(48명)
권영식 김계주 김기산 김동환 김명환 김범영 김원일 김재도 김재선 김종만 김종욱 김 철 김춘복 김태균 김태훈 김학성 노경호 류장근 류종남 류홍영 박명진 박성병 박치호 박태종 배성만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재봉 송종헌 신용준 안동문 안영훈 예영찬 이동근 이상규 이원조 이진우 이형근 임명제 장병찬 정영호 지창근 최영두 최웅남 최홍원 한성일 황규태

34회(34명)
곽수균 김동욱 김병모 김상환 김승범 김종영 김중근 김태하 김화영 노인선 박광오 박기훈 박재욱 박형웅 박형호 변성수 오상민 오송대 이상운 이진호 정노혁 정성근 정하태 조문국 조 선 조시형 진양호 최대한 하형환 허진훈 홍승철 황경조 황기유 황호용 **(정이태 2016년)**

35회(41명)
김관우 김기철 김동일 김우경 김윤석 김흥곤 김환성 나동욱 류인수 모재현 문흥근 박종수 백현호 서석권 성규원 성창용 손태섭 송호성 안종연 안창든 오시영 이기석 이남기 이동형 이영오 이종찬 이창성 이창형 이효성 정용경 정우철 정인철 정지환 정효영 조홍섭 주기홍 진호준 천현석 최기평 하승훈 황용순

36회(38명)
김관용 김규선 김병국 김병주 김수진 김영훈 김정일 김진우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김희환 박영찬 박용철 박철종 서광원 송인국 신용덕 안재익 양석용 윤용수 이상권 이상준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학수 임창섭 정인석 지동섭 차대일 채현철 최덕희 최성필 최승호 하재철 홍의창

37회(26명)
권기원 김상현 김성현 김영곤 김영태 김원범 김종희 김준오 김형기 김화종 문진형 소수헌 송경철 신우진 이주홍 장원익 전인수 조상현 조성각 조현철 최재형 탁나준 하병혁 허부남 홍병일 황태윤

38회(29명)
곽동엽 권오진 김경태 김기현 김대훈 김문철 김영길 김원철 김현민 노광택 류인식 문규상 문인현 박인철 박준표 박현수 성영기 손태환 심재영 안길수 오희진 윤경만 이동훈 이종명 정인철 조석태 조용철 차성철 최 철

39회(23명)
강대경 김대혁 김도경 김동현 김병기 김윤홍 김종엽 김진호 김현습 노성수 박인석 박종국 박병오 배효민 손석호 심왕섭 안승진 이영수 이원영 이태윤 정진혁 차문영 한상훈

40회(36명)
강창지 권병서 김경환 김성진 김영진 김종철 노원표 문기성 문태영 박근성 박무성 박민규 박상범 박양곤 박제생 배병훈 배영진 배윤성 서주현 심 철 안경진 예진원 윤진형 우영환 윤성용 이강욱 이 기 이순호 이영철 이정상 임태영 장간구 장명재 장정욱 최태훈 현정호 **(김종철 2017년)**

41회(31명)
강석희 권태웅 김범성 김봉준 김종균 김형률 박상환 박정기 박정의 박진형 양덕호 육욱성 윤광희 윤성한 윤종진 이경석 이경호 이광희 이수영 이양걸 이종민 임병호 정림상 조재봉 천광한 천성원 현재봉 하범종 한정호 허종윤 홍석우

42회(8명)
김규식 김태구 박동식 백영환 서정호 신동복 정홍준 제정환

43회(14명)
강병규 김종식 김진수 박경노 박태건 박형규 심문섭 이성훈 이승택 이용상 이호영 전세준 정용훈 최성렵

44회(12명)
김동욱 김종현 박정민 박주현 서영민 손동철 이동렵 임정훈 임지훈 정종윤 탁정환 허태욱

45회(13명)
구자삼 김상수 김용주 김태우 김현호 박상화 박 웅 오승현 이상현 장성익 진상영 최재영 하인수

46회(7명)
강성백 김동희 김성업 이주용 정영석 한영걸 황상철 **(장영석 2016년, 한영걸 2022년)**

47회(3명) 성상용 송창근 정민호

48회(1명) 김충진

49회(5명) 김학균 김현우 조영철 최진영 황철하

50회(5명) 강봉규 박석업 박종현 박현욱 정희석

51회(4명) 반겁효 정유석 정진우 최주해 **(정진우 2016년)**

52회(2명) 김상곤 장태원

54회(1명) 강종수

55회(1명) 최범준

65회(1명) 최성원

66회(1명) 김시준

69회(1명) 정민기 **(2023년)**

미국 북가주 지역 50만원

경고학교운영위원회 등(4명) 윤봉선, 이종석, 주차증, 표창술

기수 & 이름 확인불명 36명

용마 탐구 / 故 안종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평전 간행하는 권근술 동문

"안 선배 동상 세울 단초라도 만들어야 …"

한국언론의 '모세' 안종필 동문을 어찌 그냥 보내랴

"올해에는 반드시 안 선배의 평전을 쓰겠다는 다짐으로 새해를 맞는다. 내 나이 일흔셋, 올해를 넘기면 그분 얘기를 영영 못 남기지 모른다는 강박증 비슷한 초조감이 나를 짓누른다."

"안 선배가 이름 없이 역사에 묻히는 걸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서는 도저히 내 삶을 흡가분하게 정리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밤잠을 설친다. 적어도 모교 교정에 동상 하나쯤은 세워놓아야 훗날 한국언론회관이나 광화문 한복판에 '한국 언론의 모세' 동상 건립을 논의할 단초가 마련될 게 아닌가."

흡사 엄중한 지상명령처럼, 비장감과 절박감이 철철 넘쳐흐르는 이 글은 권근술(14회) 동문이 지난해 동창회보 지령 400호를 기념해서 특별히 기고한 글의 서두 부분이다. 여기서 '한국 언론의 모세'로 지칭된 '안 선배'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를 이끌었던 고 안종필(10회) 동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증하는 강박감과 바닥 모를 자괴감으로 또 1년 세월을 '신음'했을 법한 권근술 동문이 마침내 출사표를 내놓았다. 느릿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에 실려 나온 출사표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강렬했다.

"역사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영웅들이 숱하게 많지요. 그러나 자유언론을 위해 옥사한 최초의, 유일한 언론인 안종필 형님이 이름 없이 묻히는 걸 도저히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권근술의 성공 비결 1, 2, 3, 4'가 회자될 만큼, 다져온 이력으로 보나, 언론계의 신망으로 보나,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타당할 것 같은 그가 "70대 중반 늙마에" 굳이, 기어코, 고인의 평전을 쓰기로 결심한 까닭이 있을 터이다.

"안 선배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안종필 동상 건립 논의를 불러일으킬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는 고인의 동상이 "한겨레신문사 사옥 앞에, 프레스센터 현관 앞에, 광화문 광장에 우뚝 서야 한다"는 소망을 한 몫인 점규처럼 토로한다.

언론자유 지키려 독재 권력에 맞서다

안종필 동문은 한국외국어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일보와 조선일보를 거쳐 1966년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편집부 차장과 한국기자협회 동아일보 분회장을 지냈다. 그는 군계일학과 같은 편집부 기자였다. 박정희 정권이 1969년 9월14일 새벽에 '3선 개헌안'을 변칙처리하자, 9월15일치 동아일보 7면 머리기사의 헤드라인을 "그럴 수가"라는 한마디를 큼직하게 뽑았다. 그 제목은 지금도 언론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1단짜리 기사 묶음도 그의 입회에서 빼놓을 수 없다. "대학생 시국시위 기사는 1단으로 편집하라"는 보도지침에 맞서, 당대 최고의 인기 연재만화 <고바우 영감> 바로 아래 시위 기사를 편집하는가 하면, 1단짜리 시위 기사 여러 곡지를 한 군데에 모아 편집함으로써 시위 기사의 지면이 큼직하게 보이도록 편집자의 묘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러나 1974년 10월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한 그는 1975년 광고탄압에 굴복한 동아일보에서 해직되었다. 동아투위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주춤거리던 1977년 5월, 제2대 위원장을 맡은 안종필 동문은 '거리언론'의 편집장으로 언론자유쟁취 대열의 선봉에서 투쟁하다 이듬해 10월 이른바 민주인권일지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긴급조치 위반죄로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독방생활을 했다. 10.26사태로 자유의 몸은 되찾았지만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너무 짧았다. '서울의 봄'이 열리기 시작하던 1980년 2월29일, 출옥 후에야 발견한 간암과 투병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마흔셋 일기로 운명했다.

권근술 동문은 "안종필 선배 이야기를 남기지 못할지 모른다는 강박감 때문에 방점을 설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1975년 자유언론실천과 침묵 시위로 시작된 동아투위의 투쟁은 40년이 흘렀지만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가운데 사진의 오른쪽에서 세 번째 검정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안경을 쓴 이가 고 안종필 동문이다.

한국언론 사상 유일한 '옥사'로 기록해야

권근술 동문은 고인의 명의(名義)와 행장(行狀)이 결코 묻혀서는 안 되는 사유를 이렇게 규정한다.

"국내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기자의 죽음은 두 경우가 있다. 1920년 동아일보 장덕준 기자는 북간도에 우리 동포 대량 학살사건을 취재하러 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1958년 9월, 포탄이 쏟아지는 중국 금문도 취재에 나섰다가 실종된 한국일보 최병우 기자의 경우가 두 번째이다. 동아일보 주필을 지낸 역사학자 천관우 선생이 안종필 위원장의 영결식에서 말했듯이, 두 언론인의 죽음은 '기자로서 화려한(?) 죽음'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 반면에 안종필 위원장의 죽음은 언론자유를 지키려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다가 맞닥뜨린, 옥사와 다름없는, 한국 언론 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언론인의 순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권근술 동문에게 고인은 두 모습의 얼굴로 다가온다. 고난과 압제에 굴하지 않은 선배 언론인의 모습은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친형처럼 따뜻했던 '용마가족 안종필'의 모습 또한 결코 지울 수가 없다.

고인은 누구보다 동창회 활동에 열성적이었다. 특히 1968년, 동아일보 재직 당시에 동창회보가 창간되자 고인은 사실상 편집인으로 발행 과업을 수행했다. 동창회보 구독률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어디서 무엇을>은 고인이 남긴 유작 중에서도 걸작이라 할 만하다. '경남중고동창회보'가 <한국신문백년사>에 동창회보로는 유일하게 등재될 수 있게 한 주인공이었다.

'안종필 평전'은 곧 용마가족의 기록

권 동문은 '경남고등학생 안종필'의 모습을 찾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언론인으로서의 행적을 복구하는 작업은 동아투위 동료들의 도움을 받기로 해서 완성도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또 고인이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한 가방 분량 찾아내 '아버지'와 '남편'의 행적을 살피는 작업도 그런대로 추적해 나갈 작정이다.

그러나 '경고생 안종필'을 찾는 일은 도무지 깜깜한 밤에 낯선 길을 걷는 기분이다. 모교에 보존된 학적부를 열람했지만 신통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휴전협정 직후, 혼란했던 당시 상황에 비추면 제대로 된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그 격변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고인의 또 다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고인의 동기생인 10회 동문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아직은 기대와 예상에는 크게 못 미친다.

내년이면 10회 동문들은 졸업 60주년을 맞는다. '안종필 평전'이 졸업 60주년 기념 출판물이 될 수는 없을까?

안종필 동문과 함께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용마인은 모두 5명이다. 당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던 동아일보 편집국에 '지방학교' 동문이 5명이나 포진하고 있었던 것도 예사롭지 않거니와, 한결같이 언론자유수호 대열에 과감하게 몸을 던진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대은(12회, 건설회보 주간) 권근술(14회, 전 한겨레신문 사장) 이종덕(17회, 전 국제신문 사장) 강정문(18회, 전 대홍기획 사장, 작고) 동문은 '안종필 선배'를 따라 민주주의 회복과 언론자유 쟁취 대열에 뛰어들었다. 가까이 또는 멀리서나마 그들을 성원하고 기도했던 용마가족들도 적지는 않았다. 김경희(9회) 동문과 김용찬(10회) 동문은 반년 넘게 계속된 이른바 광화문 침묵 시위를 지켰다. 당시 집권당 고위급 인사였던 김택수(1회) 동창회장은 정동식(1회) 재경동창회장을 통해 은밀하게 해직 동문들의 '생활비'를 보탰다.

그러므로 권근술 동문이 엮을 <한국언론의 모세 – 안종필 평전>은 또 하나의 용마가족 기록임에 틀림이 없겠다.

어머니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모교에

김영찬 동문, 입시 수험표 등 희귀자료 경남중 기증

공부를 아주 잘했던 아들의 징표를 어머니는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알뜰한 사랑이 이제 역사가 되어 우리 앞에 돌아왔다. 아들이 받은 것이로되, 그것은 어머니 가슴에 빛나는 당신의 '훈장'이기도 했다.

경남중 입시 수험표와 경남고 입시 수험표는 희귀한 역사자료이다. 전교 석차를 매겨 시상한 '종합상' 상장도 그렇다.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경영원장 김영찬(29회) 동문이 경남중 역사관에 기증한 귀한 자료는 순전히 어머니의 아들사랑 덕분에 빛을 볼 수 있었다. 그것도 마치 드라마처럼.

"지난 4월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때 내려와서 정말 우연하게 경중에 역사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선배들의 졸업장도 있더군요. 옛날 생각이 솔솔 납디다."

당초 홈커밍 일정에는 4월26일 오전에 경중을 방문하고 자갈치에서 오찬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너나없이 25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여 늦게 일어나다 보니 경중 방문은 취소하고 곧장 자갈치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모교에 꼭 가고 싶었다. 자갈치 '사시미'는 잠시 뒤로하고, 문명환 동문과 경남중으로 향했다.

새로 지은 교사는 근사하게 보였지만, 재학 시절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40여년 저 멀리서 아련하게 피어나는 추억을 되살려 준 것은 바로 모교 역사관이었다. 그나마 역사관 덕분으로 귀속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웠다.

김영찬 동문은 그 자리에서 언젠가 어머니가 건네준 쇼핑백이 떠올랐다. 서울로 돌아온 김 동문은 서재를 뒤져 그 쇼핑백을 찾아냈다. 거기에는 오래 전에 부친이 받은 큼직한 옛날식 표창장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화려한 이력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여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는 '어머니의 훈장'을 모교 역사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족들도 흔쾌하게 동의해 주었다.

진료, 교육, 경영 병행하는 별난 의사

김영찬 동문은 전공 분야가 더욱 세분되는 의료계에 유별난 행보를 보이는 의료인이다. 진료실 안팎을 넘나들고, 진료와 교육 그리고 경영을 병행하며, 보건의료정책의 성패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고 폭넓은 봉사활동도 펼친다. 그 영역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세대 의대 출신으로 비뇨기과 전문의인 그는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의료경영학도 연구했다. 미국 듀크대 펠로우를 마치고 노스캐롤라이나대 조교수를 지낸 뒤 귀국하여 경희대 조교수, 분당제생병원 비뇨기과장, 의정부병원장, 인천적십자병원장을 역임하고 영등포병원 경영원장과 가천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로 임하고 있다.

김영찬 동문의 모친 홍진숙 여사(맨위 사진)가 고이 간직했던 '똑똑한 아들'의 징표이자 흔적들은 이제 경남중 역사관에서 더욱 빛나게 되었다. 경중, 경고 입시 수험표는 매우 희귀한 교육자료로 꼽힌다. 맨아래 사진은 김영찬 동문의 경중 졸업식에서 찍은 것인데, 곁에 있는 승용차가 이채롭다. 김 동문의 양친은 모두 의사 선생님이었다.

중앙일보, 주간조선, 파이낸셜뉴스 등 유명 매체에 칼럼을 연재했고 저서도 3권이나 된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좌도 100회 이상 가졌고, 서울고법 조정위원 등 각종 기관과 단체에 의료자문을 대표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랑스런 용마인'에 선정되었으며, 동문의사회 사무국장, 강남서초동창회 부회장으로 동창회 활동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어머니가 고이 간직했던 그 징표들이 오늘 더욱 자랑스러워 보인다.

"개발독재는 필요했다"

'경제비서관' 한준석 고문의 생생한 증언

"개발독재를 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박정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정치를 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이란 불가능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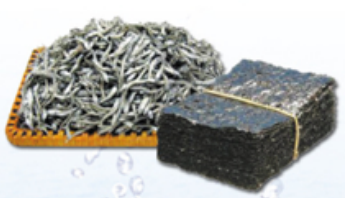
재경동창회 고문인 한준석(3회) 옹이 화제작 <박정희>를 상재하며 갈파한 자신의 지론이다. 올해 여든여섯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열정과 탐구력이 뜻은 결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저술의 부재는 "박정희 개발독재"이다.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때때로 대통령의 성급하고 과도한 의욕과 맞닥뜨렸을 때, 경제비서관으로 고비를 돌파하기 위해 뭡칠 수밖에 없었던 아슬아슬한 비화가 실체적으로 공개된 것이 우선 주목을 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 초기의 경제관을 엿보게 하는 대목도 많다. 한준석 고문은 "집권 초기에는 자본주의적 사유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앞고 보면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자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화폐개혁이나 부정축재환수조치도 자본주의적 생각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 재임 18년 동안 대다수 국민은 민주화에 앞서 생활고에 벗어나고 나아가 삶을 더욱 윤택하게 살고자 염원했다"고 진단했다.

"공산주의로는 경제발전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민주화가 되어서 경제발전을 한 나라도 없다. 정치민주화를 외면한 중국은 경제발전이 되고, 민주화를 하려던 소련과 동구권은 다 무너졌다."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수료한 한준석 고문은 수산대 전임강사로 강단에 먼저 섰다. 4.19혁명이 나기 직전인 1959년에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보좌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5.16 이후 최고회의 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하다가 1963년 대통령 경제비서관에 발탁되어 이른바 '박정희 개발독재'의 핵심요원으로 활약했다.



'다양한 품질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0年 傳統을 자랑하는
건해산물 전문업체(멸치, 김)

대 풍 건 해

대표 조 성 근 (31회) 010.3835.5307

주소 부산시 중구 남포동 1가 60-1
전화 : 051-245-5307 팩스 : 051-241-6587

김해동창회, 래프팅으로 집단피서

동문가족들 동강 원정, 월례회도 야단법석

가족 3대가 함께 모여 즐기는 김해동창회는 '큰 지붕 가족'이다. 동문가족들과 동강 래프팅을 떠날 만큼 결속력이 뛰어나다.

잘 나가는 김혜동창회의 거침없고 화기애애한 행보는 삼복더위도 막을 수 없었다. 김해동창회는 8월 월례회는 물론, 강원도 영월 동강 래프팅 원정까지 나서는 등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김해동창회는 지난 8월18일 김민수(33회) 동문이 경영하는 삼계동 금동가에서 8월 월례회를 열고 변함없는 우애를 다졌다. 조판제(25회) 회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동문들은 염흠전에 다녀온 동강 래프팅 뒷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김해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태환(13회) 동문은 월례회에 나와 모친상에 많은 동문들이 문상하고 조의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하고 금일봉을 희사했다. 이날 모임도 부회장 김규선(36회) 동문과 노태진(34회) 동문의 협찬으로 2차례 더 장소를 옮겨가며 우애를 다졌다.

한편 김해동창회는 8월8일, 동문가족과 지인 일행 28명과 강원도 영월 동강으로 래프팅 투어에 나섰다. 문산 나루터에서 된꼬까리 여울을 지나 거운교까지 이어진 래프팅을 즐긴 동문 일행은 박준모(29회) 동문의 생일파티를 겸한 삼겹살 파티를 열고 삼복더위를 씻었다. 이상운(23회) 동문은 강원도 특산 찰옥수수를 집집마다 선물했다. 돌아오는 중에는 '동강투어'로 4행시 짓기 백일장을 열고, 5분 스피치로 '상식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월례회 참석 동문

최태환(13회) 윤대희(21회) 이상운(23회) 조판제(25회) 최연삼(28회) 박준모(29회) 박희율(29회) 김동욱(30회) 황성철(31회) 양문성(32회) 배종찬(32회) 김민수(33회) 노태진(34회) 최민석(35회) 김규선(36회) 박형출(36회) 김용진(36회) 김기덕(37회) 손옥명(40회) 이상현(45회)

산행과 족구, 울산동문 야유회

울산지역동창회(회장:전학명, 28회)는 번잡한 휴가철을 피해 지난 8월30일, 산행과 족구대회를 겸들인 야유회 행사를 즐겼다.

울산대공원에 집결한 50여 동문들을 선암수변공원을 따라 신선산 신선정을 돌아오는 왕복코스 산행을 했다. 산행에 앞서 박대동 본부회장은 "울산지역 동문들은 산업화의 역군으로 신화를 창조한 선배들을 이어받아 모교발전과 동문발전을 위해 더욱 결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산행을 끝낸 동문들은 현대중공업 동문팀과 현대자동차 동문팀, 울산용마야구단과 울산33회 동기팀으로 나누어 족구시합을 벌였다. 결승에서 만난 33회 동기팀과 현대자동차팀의 대결은 33회 동기팀의 역전승으로 끝났다.

오랜만에 만나 함께 땀을 흘린 동문들은 형제장어가든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하동창회, 복풀이 건강모임

사하지역동창회(회장:진양호, 34회)는 지난 8월11일 사하구 당리 동원장수촌에서 복쌀이 건강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당초 6월에 실시하기로 한 야유회가 메르스 사태로 무산됨에 따라 동문들 상호간에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하동창회는 6월20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영월과 정선 일대를 둘러보는 야유회를 준비했었다.

보신용 닭백숙 요리로 위안을 삼은 이날 회합에는 김용엽(19회) 동문이 모처럼 참석해 후배들과 담화를 나누었다. 제일그랜드 특수인쇄소를 경영하는 김 동문은 50년 가까이 인쇄, 광고업계에 종사해 왔으며, NGO 활동과 각종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동창회는 11월경에 야외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13회 = 500회 산행

13회 산우회는 500회 산행기념으로 경주 일원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운제산 오어사에서 동기 회원과 가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행 500회 기념식을 가졌다.

18회 = 봄 야유회

지난 5월10일 경남 밀양 구만산에서 50여명의 동기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봄 야유회를 가졌다. 18회 동기회는 9월20일에도 구만산에서 임찌감치 가을야유회를 즐겼다.

25회 = 정기총회

지난 8월20일 터존뷔페에서 30여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가 있었다.

28회 = 가족동반 문화유산 답사

지난 5월10일 안동으로 40여명의 동기와 가족이 함께 문화유산 답사 행사를 가졌다.

29회 = 동기회장기 바둑대회

지난 7월19일 서면 소재 푸른기원에서

어디서 무엇을?

<13회> △김정태=7월12일 모친상, 남천성당 △최태환=8월10일 모친상, 김해전문장례식장 △허갑도=4월19일 모친상, 부민병원

<14회> △강광수=6월6일 장남 결혼, 신도림 테크노마트 △김영수=6월20일 장남 결혼, 신사동 빌라 드 베일리 △故 김용호=4월11일 장남 결혼, 그랜드쉐라톤워커힐 △이재인=8월16일 부인상, 부산진 청십자병원 △이창언=4월18일 장남 결혼, 신한은행 본점 △정 훔=4월27일 빙모상, 현대아산병원

<15회> △정효명=5월30일 모친상, 해운대백병원

<17회> △윤성욱=5월23일 모친상, 동아대학교병원 △이국남=5월30일 차남 결혼, 센텀 사이언스파크 컨벤션홀

<18회> △조성재=7월12일 모친상, 초량 인창병원 △진상영=5월21일 부인상, 동아대학교병원

<19회> △김동주=7월31일 딸 연주회, 한남동 임신홀 △남병근=7월11일 아들 결혼, 더라빌 △박만택=6월27일 장남 결혼, 더 리버사이드호텔 △안보영=5월23일 차남 결혼, 천주교성당 △윤수상=8월10일 모친상, 밀양세종병원

<20회> △강석근=6월20일 장남 결혼, 서울플라자호텔 △김명균=5월30일 장남 결혼, 대치2동 성당 △김일석=6월23일 모친상, 해운대 백병원 △박옥양=7월4일 딸 결혼, 온천장 SK허브웨딩홀 △이실근=6월7일 장남 결혼, 남천성당 △이윤선=스리랑카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최근 귀국, TEL:010-2080-3278 △이정희=5월10일 장남 결혼, 라비웨딩홀 △임세호=5월27일 모친상, 부산인창병원 △정규화=6월27일 아들 결혼식,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22회> △안계환=6월7일 차남 결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23회> △김계호=6월12일 장남 결혼,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김영목=5월9일 장녀 결혼, 파티오나인 △문규헐=6월6일 장남 결혼, 서초동성당 △이재동=5월19일 빙모상, 남천성당

<24회> △원희광=7월22일 빙부상 부산대학병원 △임철호=8월16일 장남 결혼, 오아제웨딩홀 △최재영=5월17일 장녀 결혼, 리츠칼튼 서울

<25회> △곽광식=5월31일 장남 결혼, 에니버셔리 청담 △김대헌=8월23일 장녀 결혼, 부산 웨스턴조선호텔 △박상건=9월5일 장남 결혼, 엠타워 △故 안대원=9월6일 차녀 결혼, 파티오나인 △우상용=9월5일 장남 결혼, 코엑스 아모리스홀 △주재걸=6월21일 딸 결혼, GS타워 △최재환=6월13일 차남 결혼, 호메르스호텔 △태명산=5월17일 장녀 결혼, NC백화점 부산대점 △허철구=7월18일 장녀 결혼, 더 화이트베일

<26회> △김두영=6월21일 모친상, 시민장례식장 △김민철=8월29일 장녀 결혼, 아이윌웨딩홀 △김형도=9월6일 아들 결혼, 엠타워 △박동조=7월4일 장남 결혼, 대전 ICC호텔 △박점근=6월7일 장남 결혼, 김해 봄메종웨빙뷔페 △배기호=8월8일 아들 결혼, 안동 리젠호텔 △배흥규=6월28일 빙모상, 청담동성당 △이종진=8월29일 장녀 결혼, 엠타워 △하우봉=8월22일 장녀 결혼, 사이닝스톤

<27회> △강기철=8월14일 모친상, 해운대백병원 △윤종철=6월15일 빙모상, 해운대백병원 △이종찬=7월18일 장녀 결혼, 헤리움웨딩 △임용한=5월30일 아들 결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장원규=6월14일 딸 결혼, 아펠가모 반포점 △전창민=6월27일 장

16명의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제18회 동기 회장기 바둑대회가 있었다.

33회 = 단합대회

지난 7월12일 산성마을 현대가든에서 단합대회가 있었다.

경불회 = 정기가족법회

지난 7월18일 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3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정기가족법회가 있었다.

용마언론인클럽 = 정기모임

부울경용마언론인클럽은 지난 8월25일 광안리 방파제횟집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부산교통방송 본부장으로 취임한 김재철(30회) 동문을 축하하는 자리를 겸한 이날 모임에서 김 동문은 "가청권 내의 1,100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연의 교통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인사했다.

"프랑스 훈장 돌려주었다"

이우환 동문 전격 공개, '뒷거래' 악담에 격노한 듯

이우환 동문은 '뒷말이 시끄러워서 훈장을 되돌려 주었다고 했다. 오른쪽은 이 동문의 저서 (이조의 민화)

한때 미술계 참새들 사이에 "설마?"하던 것이 분명번에 베일을 벗는 듯했다. 이우환(10회) 동문이 공개 석상에서 "시끄러워서 도로 돌려주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가 '돌려주었다'고 한 것은 2007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한 최고 권위의 훈장, 레지옹 도뇌르를 가리킨다.

지난 7월17일 부산시립미술관 강당. 이우환 동문은 초청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던 중, "프랑스 훈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청중의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머뭇거림 없이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자초지종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우환 동문은 오래 전부터 자신이 에써 수집한 17~18세기 조선시대 민화 100점과 병풍 27점을 프랑스 국립기메 박물관에 장기 기탁했다. 현지 언론들은 대서특필했다. 당시 르 피가로도 그렇게 해석했지만, 사실상 기증이었기 때문이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분분했다. "왜 프랑스에 주느냐?"는 쪽과 "우리는 왜 민화를 대접할 줄 모르느냐?"는 쪽으로 나뉘어졌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보물급들이 다수여서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당연했다. 더러는 동양미술 전문 미술관으로 유럽에서 권위를 인증받고 있으므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훌륭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기메박물관에 기증할 생각은 아니었다.

예시당초 이 화백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중앙박물관은 난색을 나타내며, "국립민속박물관이 어떠냐?"고 했던 것이다. 이 동문의 생각과 서울 미술사학계 주류의 생각 사이에는 거리가 한참이었다. 우리것에 대한 푸대접을 그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날 부산시립미술관 초청 강연에서도 그는 목소리를 높여 '민화' 이야기를 길게 이어갔다.

이우환 동문은 '민화'라고 부르지 않는다. 민화라는 명사에 이미 '하급'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고, 일본식 표현도 거슬린다. 그는 "도화서 화원들이 몰래 '알바'로 그린 것이어서 화가의 도서가 없을 뿐, 엄연히 우리 전통회화의 중요한 장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그림을 '전통 장식화'로 부르며, 그 장식화의 자리를 찾아주려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러나 "민속박물관에 나가 보시라"는 데 격분했고, 급내 보물급 장식화 127점은 프랑스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 그가 프랑스 훈장을 반납한 것은 '전통 장식화'로 말미암아 또 다시 그의 속을 후비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민화 127점과 훈장을 맞바꾼 게 아니냐?"라는 수군거림이었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대신해서 장 프랑스와 자리쥐 기메박물관장이 수여한 것이 구설수의 꺼리를 제공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격노했다. 결과는 "시끄러워서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부산시립미술관 관계자들도 훈장을 도로 돌려주었다는 공개적 발언을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반납한 프랑스 훈장에 대해 보도한 국내 매체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녀 결혼, 센팀사이언스파크컨벤션 △정원재=8월8일 빙모상, 여의도성모병원 △정중진=6월3일 모친상, 강남성모병원 △차승원=6월6일 딸 결혼, 해군회관 W웨딩홀 △최용일=6월5일 장남 결혼, JM메리어트호텔 △황수명=9월 12일 아들 결혼, 옥수동성당 △황지명=8월16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28회> △김부운=5월31일 차남 결혼, 뉴몬티넨팔호텔 △남택희=7월31일 모친상, 고양 일산병원 △박병준=8월23일 장남 결혼, 센팀사이언스파크웨딩홀 △박영제=5월4일 빙부상, 삼육서울병원 △신효철=6월27일 딸 결혼, 염투체컨벤션 △안상원=9월5일 장남 결혼, 수원 호텔리츠 △오창일=7월24일 부친상, 동아대학교병원 △유봉수=8월8일 빙모상, 부산영락공원 △이상진=8월29일 차녀 결혼, 삼성동 더 라빌 △이춘성=5월16일 아들 결혼, 르네상스호텔

<29회> △김성문=8월20일 모친상, 해운대백병원 △김순기=9월12일 장녀 결혼, 한강성당 △김용수=7월19일 부친상, 인창병원 △김종진=5월23일 장녀 결혼, 청담동레스토랑 △김태명=5월2일 빙부상, 동래봉생병원 △김태수=5월24일 차녀 결혼,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민동식=5월23일 모친상, 동아대학병원 △박성재=7월31일 빙모상, 창원시립상복장례식장 △배성한=5월16일 아들 결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백민호=4월30일 부친상, 부산 시민장례식장 △신용인=6월17일 모친상, 해운대 백병원 △故 이경호=5월16일 장남 결혼, 대전 ICC호텔 △이성훈=6월1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이헌율=5월14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전영상=8월15일 장녀 결혼, 호메르스호텔 △조한욱=5월23일 빙부상, 동아대학병원 △최원락=「최원락 내과의원」 이전 개원, 부산시 사하구 옥천로 5번지(부산은행 감천동지점 맞은편), TEL:051-207-2700 △최정만=6월27일 장녀 결혼, 쉐라톤 워커힐호텔 △황유명=8월16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30회> △김진홍=8월29일 장남 결혼, 더 라빌 △김창곤=9월5일 장남 결혼, 방배동성당 △김해균=7월25일 장녀 결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노희석=7월15일 빙모상, 김해 조은금강병원 △박기형=9월12일 차녀 결혼, 코모도호텔 △故 박윤희=6월13일 장녀 결혼, 에버2000웨딩홀 △신구균=6월13일 장녀 결혼, 장충동 경동교회 △이규하=6월19일 모친상 △이용우=5월29일 모친상, 봉영 승례관장례식장 △이태봉=5월10일 모친상, 부산 시민장례식장 △이학희=8월14일 모친상, 서울아산병원△조재우=5월25일 모친상, 부산의료원 △조흥래=5월28일 빙모상, 부산대학병원 △최준영=7월5일 아들 결혼 △하용성=6월25일 빙모상,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31회> △김대식=6월30일 빙부상, 인창병원 △김영수=7월17일 부친상, 인창병원 △김인현=7월2일 빙부상, 해운대 백병원 △문성환=5월29일 빙모상, 대동병원 △박재근=5월2일 장녀 결혼, 아리랑관광호텔 △윤 범=5월30일 장녀 결혼, 드레스가든 △이병곤=8월11일 빙모상, 국립의료원 △임길호=5월25일 모친상, 인창병원

<32회> △김종두=5월30일 차남 결혼, 해암웨딩홀 △이용담=8월5일 부친상, 남천장례식장 △이원천=8월5일 부친상, 부산 수요양병원

<33회> △김승봉=5월25일 빙모상, 동아대학병원 △김학성=7월3일 부친상, 침례병원 △남승훈=4월30일 부친상, 봉생병원 △남택은=7월31일 모친상, 일산병원 △이염호=「괴정우리들치과」 이전 개업,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955-22, TEL : 051-204-1177

<34회> △김종명=8월16일 빙모상, 부산의료원 △박서효=「맛존 갈매기」 개업, 울산시 남구 달동 8822-1번지 △조 선=8월 27일 모친상, 서호병원 △최경성=8월24일 부친상, 제주 부민장례식장

<36회> △이성호=7월24일 빙부상, 침례병원

<41회> △견순웹=5월3일 빙모상, 이대목동병원 △김태욱=5월2일 부친상, 시민장례식장 △문성득=5월21일 부친상, 용호동 성모병원 △윤형배=5월10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이성호=7월27일 부친상, 부산영락공원

NEWS 동문동정

김형오(20회) 백범사업회 신임회장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동문이 지난 7월, 백범 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김형오 신임 회장은 "백범이 품었던 꿈과 희망과 비전은 우리 5천만 국민, 나아가 7천만 동포에게 지금도 살아 있는 이정표"라고 강조하고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게 그 정신과 비전을 심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부산대 석좌교수와 한국경제신문 객원 대기자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김 동문은 지난 9월9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의원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부산의 경쟁력, 어디에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김 동문은 가덕도 신공항, 한일해저터널, 북극항로 등 부산의 당면 현안에 대한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했다.

박승준(27회) 간행물윤리위 부위원장

재경동창회보 <용마> 편집인 박승준 동문이 7월28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과 홍콩 특파원으로 활약한 언론계 출신인 박 동문은 인천대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간행물윤리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박 동문은 외국간행물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되었다.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국내에서 발행, 판매되는 모든 국내외 출판물과 간행물의 윤리-사회적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 유통 가능성 여부를 심의하며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영철(36회) 시사저널 편집국장

조선일보사의 이코노미 조선 편집장 박영철 동문이 9월1일 시사저널 편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 공채 28기로 입사했던 박 동문은 지난해 4월부터 조선뉴스프레스 경제미디어 본부장 겸 이코노미 조선 편집장으로 일해 왔다. 박영철 편집국장은 "좀더 사회에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스카우트 제의에 응했다"면서 이념보다는 팩트를 중시하여 "좌우를 막론하고 국민 다수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가차없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급변하는 세상에서 정보는 곧 돈"이라고 지적하고 "생활경제, 재테크, 건강, 문화예술 등 잠삼기 위한 정보를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며 '돈 되는 정보'에 방점을 찍었다.

지원영(56회)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서울대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원영 동문이 9월1일 삼성전자 책임연구원으로 발탁되었다.

지원영 동문이 연구, 개발한 마이크로 산화알루미늄 패턴 가공 기술은 그동안 마이크로 RF 안테나 개발에서 장벽으로 남았던 RF 특성 저하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혁결책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지원영 동문은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FAB 설비개발팀 설비H/W그룹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다.

허기욱(58회) 임동규(61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

허기욱(58회)

임동규(61회)

허기욱 동문과 임동규 동문이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 최종 합격자는 917명이다.

허기욱 동문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임동규 동문은 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하고 있다.

"골든타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부산문화회관장 취임한 '해결사' 이승호 동문

이승호 동문은 기획, 추진력이 뛰어나고 뱃심도 두둑한 경영인이다.

이승호(28회) 동문은 부산문화방송에서 33년간을 일했다. 편성제작국장, 경영국장, 본부장, 드라마제작단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기획-추진력이 탁월한 연출가 겸 경영 전문인으로 꼽힌다. 뱃심도 두둑하다.

전임자가 남기고 간 뒤치다꺼리가 산적한 가운데 중임을 맡게 된 이승호 관장은 "30여년 방송사 생활을 통해 문화콘텐츠 생산에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았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며 예의 당당하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일찍이 임선 PD 시절, <MBC건강교실>을 간판 프로그램이자 최고 효자 프로그램으로 도약시키면서 일약 두각을 드러낸 그였다. 또한 드라마제작단장을 맡아 지역방송 최초로 '불의 여신 정이'를 제작하고, 기어코 MBC 월화드라마로 전국에 방영되게 한 전략가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최초의 여자 사기장의 삶을 다룬 그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12%를 기록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산문화회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진단에 입각하여 여러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투명한 경영', '원칙을 지키는 경영', '소통의 경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문화회관 관장은 당연직 부단장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위시해서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등 시립예술단을 '관장'한다. 이 관장은 예술단원이나 직원들을 수시로 찾아가 면담함으로써 '경청의 리더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과 소통하려면 "먼저 부산문화회관에서 어떤 공연이 열리는지를 알려야 한다"고 말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경영 측면에서도 부산시 예산만 쳐다보지 않고 민간의 협찬과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발군의 해결사 모습을 보여 주었던 그의 이력에 비추어 보면, 기대치가 낮지는 않다.

"시민들의 삶의 체증도 풀겠다"

TV 떠나 TBN 마이크 잡은 김재철 본부장

김재철 동문(사진 왼쪽)이 인사차 부산시장 서병수 동문을 찾았다.

1990년대 후반이었던가? 민완기자가 아닌 뉴스 앵커로 브라운관에 등장한 그는 흡사 뷰티싸롱에서 막 나온 유명 연예인 같았다. 약관의 나이에 앵커맨 '관록'을 메이크업하려다 보니 그랬을지 모르겠다. 물론 오래 전의 이야기이다.

아무튼 그는 평소에도 옷매무새와 머리단장에 꽤 신경 쓰는 듯했다. 항상 멋쟁이로 나타난다. 만나서 인사하며 건네는 말도 상투적이지 않다. 그의 수사학에는 독특한 토씨이 배어 있다.

지난 8월6일, TBN 부산교통방송 본부장에 취임한 김재철(30회) 동문이 또 어떤 곳에 신경을 쓸지 여간 궁금하지 않다. '펜트하우스'에서 지내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로 옮겼다고 말하지는 말자. 고위직 퇴역 경찰 간부들의 텃밭처럼 치부되던 '비정상' 자리가 이제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는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하는 부산교통방송 가족들과 새로운 방송생활을 힘차게 펼쳐나갈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고 했다. 부산MBC에서 뼈가 굵은 그가 '설렌다'고 했을 때는 심상치 않은 무엇이 나타날 조짐을 예고하는 일이다.

"IT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정보제공의 대표적 수단으로 군림했던 방송을 둘러싼 두터운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았습니다. 기존 네트워크는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더욱 참신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신속, 정확하게 교통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정보는 경쟁력이 없다고 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실황을 생생한 현장감에 담아 전하는 정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물론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체증도 삼켜보겠다고 했다. 집중호우로 시가지가 마비 직전일 때, 올바른 대처법을 제대로 알려 주는 재난방송, 부산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교통정보에 기상정보를 보태고, 덤으로 또 무엇을 더 얹어주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지난 광복절에 정부에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자, 김 본부장은 서병수 부산시장에 건의했다. 부산 시내 유료도로 통행료도 모두 면제해 주자고 말이다. 통행료가 면제되었음은 물론이다.

용마에세이

손주 사랑과 추석 홍시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의 정열적인 사랑, 지긋한 부부간의 믿음에 찬 사랑, 구수한 친구간의 우정, 다투고 보채는 동기간의 사랑, 희생적인 부모님의 자식사랑…. 그런데 무엇보다 헌신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1998년에 큰 애를 짝지우고 2001년에 둘째도 제 짝을 맞았지만 오래도록 후손이 없어 '할아버지'라는 용어 자체가 나와는 거리가 먼 단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25일, 무슨 종교적인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예쁜 손녀를 얻게 되었고, 지난해 3월에는 첫째로부터도 건강한 손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이 마냥 신기했습니다. 자식 키울 때와는 또 다른 정을 느끼며 '할애비'라는 용어에 차츰 익숙해지면서 각별했던 내 어머니의 손주사랑이 새삼 떠오릅니다.

1947년, 어머님 연세 서른일곱, 내 나이 다섯 살 때,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시고 홀 시어머님과 큰집 종부라는 무거운 짐과 함께 우리 삼남매를 키우시면서 행여 기죽을세라, 행여 어긋날세라, 노심초사하셨지요. 조그만 잘못에도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는다"고 하시며 회초리로 종아리를 치시며 엄히 다스리시곤, 돌아서서 몰래 눈물 지우시던 어머님의 속 깊은 사랑을, 나는 미처 알지도 못한 채 나이만 먹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 속에 별탈없이 자랐고, 나이 들도록 짝을 찾지 못한 형님과 누님보다 막내인 내가 먼저 배필을 만나 큰애를 낳았지요. 어미젖이 모자라 분유를 먹이자, 분유만으론 영양공급이 안 된다며 손수 좋은 쌀을 구해 분쇄기에 갈아 연탄불 앞에 앉아 암죽을 끓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놈으면 화근내 나서 잘 먹지 않는다며 좁쌀에 겨운 눈을 반쯤 감으시고 냄비를 저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해 바깥에 나갈 때는 삶은 고구마, 찐 계란, 물통을 싸서 들고, 다른 한손엔 호미 한 자루를 쥐고 나가셨지요. 걸음마 손자가 행여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세라 꼬부라진 허리를 펴지도 않고 돌아난 돌멩이를 호미로 파내 길

박윤성(24회 동문의 그림

건너로 던졌습니다.

지극 사랑으로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그렇게 키워내셨습니다. "이놈들 학교 가는 것만 봤으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것만 봤으면…" "대학가는 것만 봤으면…" 하시던 게 산수(傘壽)를 넘기시고, 큰손자가 직장을 다니고 둘째, 셋째가 군 복무할 때까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내 나이 고희를 훌쩍 넘기고, 막내가 벌혹을 바라보는 지금, 없던 딸 대신 착한 두 며느리와 예쁜 손녀에 손자까지 식구도 제법 풍성해졌지만, 할머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95년 11월26일 일요일 아침, 노환으로 건강이 여의치 않아 병원으로 가신지 삼일째 되던 날, 평소 간병을 하던 집사람 대신에 큰애가 병실을 지켰습니다. 다음날, 새벽을 깨우며 울리는 전화 벨소리의 섬뜩함에 급히 수화기를 들자 "할머니가…"하는 큰애의 다급한 소리가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영안실로 옮겨졌고, 어머님의 주검 앞에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리라 믿고 살아온 식구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생전에 원하시던 대로 화장해서 영락공원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어버이날, 생신 때, 설 추석 명절에 온 식구들이 어머님 뵈러 가노라면, 예나 다름없이 꼬부라진 허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반가이 맞아 주시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납골당 침침한 곳에 계시는 게 아무래도 갑갑하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평소 즐겨하시던 홍시가 익는 재작년 가을날, 우리집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금정산 자락 경관 좋은 언덕배기에 어머님 유골을 뿌려 드렸습니다.

올 추석에도 식구들이 모두 모일 것입니다. 잘 익은 홍시도 차례상에 올리고 정중하게 절을 드릴 테지요. 할머니의 맹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한 당신의 손자놈들이랑, 당신의 증손주인 내 손주들이랑, 모든 가족들의 가슴 속에 가득히 남아서, 더 많은 이웃들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드립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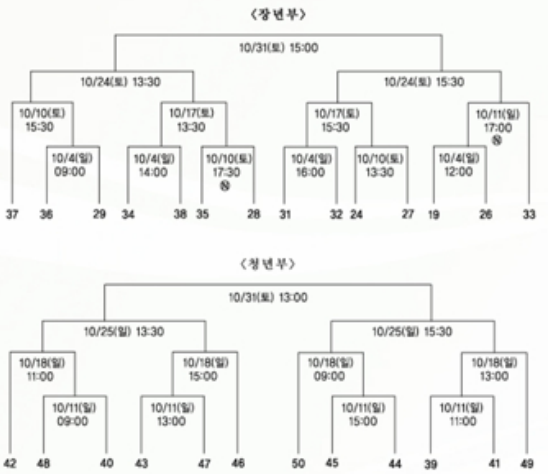
박소남 / 15회
북부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제47회 동창회장기 기별 야구대회

▶ **입장식** _ 10월 4일 (일) 오전 11시, 경남고 운동장 (우천시 : 체육관)

▶ **폐회식** _ 10월 31일 (토) 오후 5시 30분, 경남고 운동장

※ 1. 출전팀 구성
① 장년부 : 19회 ~ 38회 ② 청년부 : 39회 ~ 50회
2. 입장식 후 용마가족 이벤트 행사
3. 참가동문 기념품 제공



아이스퀘어몰 검색

170여개의 다양한 브랜드 – 새로운 생활이 펼쳐지는 몰링세상
김해지역 쇼핑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킵니다

아이스퀘어몰

LOTTE Mart · UNIQLO · ISQUARE HOTEL FITNESS · 롯데시네마 · The Party
BASIC HOUSE · ABC-MART · LAP · 다반 · 사브사브@칼국수
10 TOPTEN · FOLDER · 9oz · 화미주헤어 · Mr.Pizza
GIORDANO · new balance · ANA CAPRI · LIVART KIDS · Dining Sen
WHO.A.U Californian Dream · SBENU · SATIN · 농협 · Valance Burgers
JACK&JILL · mont-bell · YK · BNK 부산은행 · MOM'S TOUCH
NII & together · WESTWOOD · Wonderbra · Foot 나라 · CHICAGO PIZZA & PUB
HUM Dream Maker · Jack Wolfskin · Roem · INOTI · MOMO 성형외과
TEAMS · W.ANGLE · 2ME · 메리퀸 · STEFF HOUBERG HOTDOG
UNIONBAY · Schneider · EBLIN · 이층에 꽃집 · 오빠니니
LLOYD · laughing child · Hunt · 갤맥
CLUE · CHARLIE WONDER · AROUND101 · 김경환내과 · bbq
OST · stylenoriter · misskorea · 인플란트치과 · 꼬치사께
VICKY · HELLO;)MAMY · BLAHNIK · CU · 치치
Mr.sushi · ZIOZIA · WORLD · GS25 · Tozzang
CHRIS. CHRISTY · olleh kt · LUCYCATO candy · Mini
소반꼭꼭이 · Angel in us Coffee · MACARON · 천촌화시락국밥
· 콩꼬꼬 · 은희수 식당 · 본죽&비빔밥 cafe
EDIYA COFFEE · 정든낙지
홍콩반점 0410 · 설빙 · HAVANA EXPRESS · DAN.D · 달빛감자
새마을식당 · 김덕규과자점 · Tok tok
시원하면 대구 · 중떡 · CAFE FOX NOSE · HAKOYA

ISQUARE MALL
김해시 김해대로 2342 부원역 1번출구
상담문의 : 055)329-8000